

지자체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충청권 연계협력토론회 자료집

- 일시 : 2012. 6. 19(화) 10:00
-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3층 대회의실
- 주최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 주관 : 대전발전연구원
- 후원 :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 한국생산성본부

행사 일정

09:40 ~ 10:00	등록 및 개회
10:00 ~ 10:05	참석자 소개 ▪ 사 회 : 녹색생태관광사업단 황정하 실장
10:05 ~ 10:10	인사말씀 ▪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
10:10 ~ 10:45	주제발표 ▪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 김현호 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 대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 추진현황 - 김용동 대전발전연구원 녹색생태관광사업단장
10:45 ~ 10:50	휴식
10:50 ~ 11:50	종합토론 (좌장 :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홍은아 충청권광역위 팀장 ▪ 윤영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김록중 대전시 관광산업과 계장 ▪ 정성엽 충북도 균형개발과장 ▪ 양인석 대덕구 기획감사실 주무관 ▪ 최원영 보은군 기획예산실 계장 ▪ 류재구 옥천군 기획예산실 팀장 ▪ 김정희 지역발전위 연계지원과장
11:50 ~ 12:00	마무리 말씀 (소기홍 지역발전위원회 단장)
12:00 ~ 13:00	점심식사 (삼복가든 - 대전 유성구 복명동)
13:00 ~ 16:00	대청호오백리길 사업현장 방문 (대전 대덕구 삼정동, 충북 청원 청남대)
16:00 ~	폐회

CONTENTS

<주제 발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 김현호 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사례 발표> 대충청 녹색생태관광사업 추진현황

- 김용동 대전발전연구원 녹색생태관광사업단장

대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 주요 소개

대충청권 연계협력토론회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김현호 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2012. 6. 19

< 목 차 >

- I. 문제의 제기 /1
- II. 지역간 연계협력의 개념 및 의의 /2
- III. 지역간 연계협력의 제도적 기반 /7
- IV.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현황 /12
- V.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실태 /27
- VI.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성과와 한계 /32
- VII.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개선과제 /39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I. 문제의 제기¹⁾

- 교통과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광역화되면서 지역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세계의 지역들은 보다 심화된 지역간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간 연계협력에 바탕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다투는 장소들의 폭발”(explosion of competing places), “장소전쟁”(place war)에 비견될만큼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명박 정부도 ‘규모의 경제’에 의한 지역간 연계협력을 기초로 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이른바 ‘신지역 발전정책’의 시행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지역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설정된 초광역개발권과 시·도를 아우르는 광역경제권은 물론, 시·군 단위의 기초생활권에서도 지자체간의 연계협력을 중시해오고 있음
- 작년과 올해, 지역위가 중심이 되어 지역간 연계협력 순회토론회 개최하는 등 지역간 연계협력을 중시하고 있음
 - 특히, 지역위는 지역간 갈등과 대립의 “지역발전 3.0”을 넘어 지역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지역발전 4.0”을 표방함으로써 지역의 연계협력 발전을 재차 강조²⁾
- ‘10년에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을 거쳐, ‘11년부터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간의 연계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 2011년부터 10개의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30개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자체들은 오랜 동안 관할구역 위주의 정책관행이 고착화되어 있어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이 소기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측면이 많음³⁾
- 여기서는 우리나라 연계협력사업의 현황 및 실태, 성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연계협력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함

1) 이 원고는 김현호(2012)의 세미나 발표원고(5월 16일, 가천대)를 상당부분 인용, 보완하였음을 밝혀둠

2) 지역위 주도의 2012년 5월 10일 “지역상생포럼” 창립 취지문을 참조

3) 복수 지자체가 공동계획을 수립하거나 상당한 수(기초생활권의 경우, 2010년 339개 등)의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간 연계협력의 분위기가 축적되어 가는 측면도 있음

II. 지역간 연계협력의 개념 및 의의

1. 지역간 연계협력의 개념

- 지역간 연계협력은 주체들이 각자의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작용에 기초한 교환 및 협상을 통해 자원, 권한, 역할 등을 교환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
- 지역간 연계협력은 다양한 수준의 지자체가 상호의존에 기초한 협력을 통해 자원, 권한, 역량 등을 결합 생산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지칭함
 - 지자체간 협력은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목표달성을 위해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목표지향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생산적 과정을 거쳐 최종생산물 혹은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향유하는 속성을 지님(김선기, 한표환, 2003)
- 정책적 개념으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기능적 연계를 통한 지역간 상생발전”으로 풀이한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

2. 지역간 연계협력의 효과

- 지역간 상호보완의 시너지 창출
 - 지자체 상호간의 비교우위를 살리고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상생발전이 가능
 - 공동투자를 통해 더 많은 성과와 산출량을 창출할 수 있는 4가지의 외부경제, 즉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집적 경제(agglomeration economy), 네트워크 경제(economies of network)의 확보가 가능

구 분	내 용
규모의 경제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경우
크기의 경제	산출량을 두 배로 늘릴 때, 투입물의 비율변화를 통해 두 배 이하 증가 ⁴⁾
집적 경제	지역간 협력을 통해 동종 업종간의 집적을 통해 거래 비용 감소, 학습 등의 외부효과의 편익을 향유
네트워크 경제	물리적으로 인접하지 않더라도 기능적 연계를 통한 비용의 절감

- 지역갈등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지자체간 공동참여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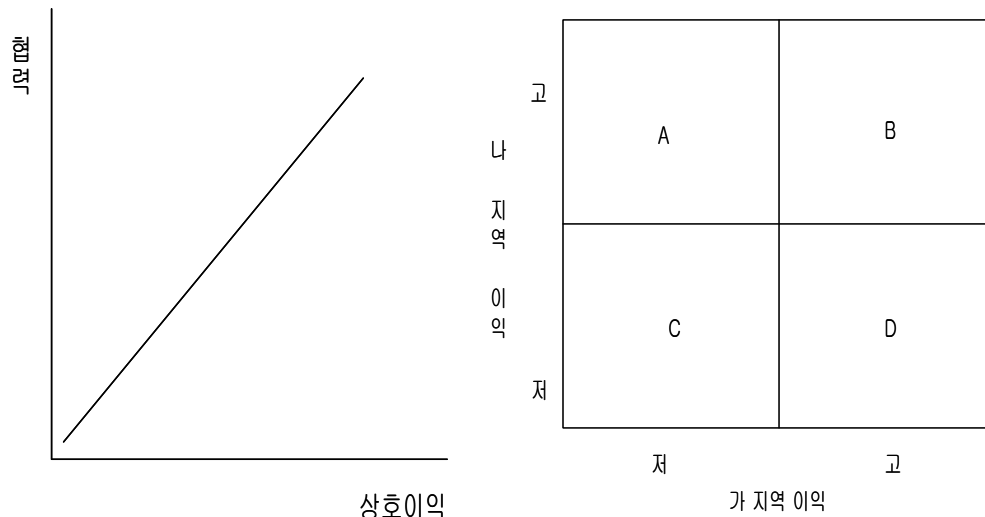
4) 규모의 경제는 투입물의 비용이 동일하게 변화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산출물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비해, 크기의 경제는 투입물의 변화를 허용하고 비용변화를 측정

○ 지역발전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

- 사업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한정된 국가 및 지역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
- 지역발전 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공동투자를 통해 비용을 절감

3. 지역간 협력의 특성

- 지역간 협력과 상호이익은 정비례하는 관계를 보유하고 있음
- 상호이익이 클수록 협력은 활성화되는 반면(그림의 B), 상호이익이 적거나(그림의 C) 일방의 이익이 큰 비대칭적인 경우(그림의 A, C), 지역간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는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함(한표한 외, 2002: 15).



자료 : Schmit & Kochan(1977: 224), 한표한 외(2002)

4. 지역간 연계협력의 활성화 요인

- 지역간 연계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합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음
- 입장과 관점에 따라 협력에 대한 의지에서부터 협력을 위한 지역의 자원, 리더, 성과창출의

방법, 참여주체의 수와 폭, 협력의 기구, 제도, 심지어 협력에 대한 지역이 분위기 및 신뢰까지 다양한 요소가 지적될수 있기 때문(오은주, 김현호; 2008)

- 특히 제도적인 측면과 행태적인 측면으로 구분하기도 하며(한승준, 2006: 258-250; Jessop, 2000), Leach & Pelkey(2001)는 재정지원 등을 중시

순위	요소	순위	요소
1	펀드 및 재정지원	5	관련기관의 대표참여
2	효과적인 조정자	6	절차 및 결정의 규정
3	활동범위, 의지, 신뢰	7	정보, 합의에 의한 결정
4	낮은 갈등	8	효과적 의사소통, 적정한 지리적 범위

자료 : Leach & Pelkey, 2001: 381에서 정리

- 특히, 이렇게 다양한 요건들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협력의 활성화 요건은 제도적인 측면과 행태적인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한승준, 2006: 258-250; Jessop, 2000)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
 - 제도적 측면은 다시 지역간 협력을 위한 제도⁵⁾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를 의미하는 제도화 수준과 지역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인적자원, 전문성, 정보 등을 의미하는 자원보유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 행태적 측면은 몰입목표의 수준과 상호의존성 정도로 구성되는데 목표몰입수준은 관련 파트너들의 공동업무에 대한 몰입의 자발성 정도를 타나내며, 상호의존성은 파트너가 상호협력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의 선호 정도를 의미함

5) 지역간 협력체 구성, 역할분담, 업무배분, 의사결정 등에 대한 규칙의 명확성 및 구체성 여부, 파트너간의 협의를 통한 결정의 구속력 여부 등을 나타냄

구 분		요건의 내용	비고
제도측면	제도화	· 공동업무 · 자치단체간 협력체 구성 · 역할분담 / 업무배분 · 의사결정 규칙 · 협약 등 제도	제도 및 기구
	자원보유	· 중앙의 자원 · 파트너 보유 자원 · 인적자원, 리더, 참여자의 수 · 전문성 / 정보 등	협력의 폭, 깊이
행태측면	목표몰입	· 협력업무에 대한 자발성 · 특정행위자 주도 등 · 협력의지, 신뢰 등	협력의지
	상호의존	· 협력 참여도 · 협력의 강도 및 빈도 · 상호작용의 정도	협력의 폭, 깊이, 결과

○ 경험적으로는 지자체간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는 경우

- 협력의 성과를 공유한 경험이 있어 협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호를 신뢰하는 문화도 형성은 지역들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Hoogh & Marks, 2001: 42-46, 정규호, 2002: 45)
-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공동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강할수록 협력이 활성화
-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분야에 대한 협력 보다는 제한적이며, 구체적인 분야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
- 높은 단계의 협력보다는 낮은 단계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
- 협력의 위기를 조정하고 관리할 뿐 아니라 협력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리더나 기구가 존재하는 경우(차미숙 외, 2003; 박경원, 2003; 한표환 외, 2002)

5. 지역간 연계협력의 동향

- 지역간 협력의 경향이 종래의 행정이나 환경, 공공시설 협력 중심에서 경제협력으로 확대되고 있음
- 지역간의 경제협력의 비중이 높아지고 협력의 성격이 변화되는 요인에는 세계화, 지방자치

제 등의 심화로 인해 지역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기책임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 이같은 경향은 협력에 대한 동기유발은 물론이고 공동목표에 대한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음
- 협력의 주체가 종래의 정부부문의 제한된 범위에서 정부내 다양한 주체는 물론이고, 지방정부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 사회의 민주화 등으로 정책결정과 처리에 대한 참여의 의지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생활권, 경제권 등이 단일한 행정구역을 가로질러 광역화되고 있기 때문임
 - 협력의 주체를 확대시키는 협력의 폭 확대 경향도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협력의 범위가 제한된 범위나 지역에서 보다 포괄적인 범위나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종래는 단일한 사무에 대한 협력과 특정한 지역에 제한된 협력이 주류를 형성했으나 최근에는 지역발전 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나 광역지역간 협력 등으로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Ⅲ. 지역간 협력사업의 제도적 기반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⁶⁾

- 균특법 제1조는 전반적인 선언, 제20조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39조는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규정
- 제1조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표방하고 있음
- 제20조는 지자체 상호간의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지역간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만을 규정할 뿐, 지자체 상호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의 개별적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협력기제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김선기 외, 2009)
 - 특히,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상호간 이해관계 일치, 의무적 재정분담 등이 전제됨으로 일부사업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아 광범위한 분야에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제39조는 지자체 상호간 협력을 기초로 지역발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예산편성 우선반영 및 세출예산 차등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이들은 법적으로 선언적인 규정일 뿐으로 지자체간 협력을 실질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방안의 제시가 부족한 한계가 있음
 - 지자체간 공동사업의 추진으로 현저한 재정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협력을 기피하는 경

6) 물론 여기서 다루는 균특법, 국토기본법, 지방자치법 외에도 많은 개별법에서 지역간 연계협력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이 재정지원, 사업의 추진 등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추진된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개별법의 연계협력에 대한 제도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생략함

향이 있어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

2. 국토기본법

- 국토기본법은 국토를 개발, 발전하는데 있어 공동발전 규정을 제시
- 제3조는 ‘지자체간의 지역간 교류협력과 공동번영’을 규정하고 있음
 -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의 달성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규정은 구체적 실행방법, 집행수단의 제시가 없는 형편이라서, 지역간 협력을 제시하는 선언적인 내용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3.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에는 광역행정의 일환으로 자치단체간 행정협력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비교적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 행정협의회를 제외하고는 활용이 적극적이지 못한 실정이나, 최근에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치하는 사례가 간간히 발생(김선기 외, 2009)
- 지방자치법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지자체간 협력제도는 지자체간 행정협의회, 조합 등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사무위탁 : 정형화된 절차나 형식이 없이 관례에 따라 모든 것을 협의로 정하도록 위임
 - 행정협의회 : 시·군간 협력에서 시·군 의회 뿐 아니라 시·도 의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되어 있어 절차가 너무 복잡
 - 지방자치단체조합 : 시·도지사 또는 행안부장관의 설립 승인, 운영과정의 지도·감독, 행안부장관의 해산·규약변경 명령권 등 지자체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해 소지 보유

조항			내 용
균특법	20조	지역투자 발전협약 체결	○ 지역발전 공동사업 추진 협약체결 -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 공동사업 ○ 협약내용 및 협약이행 조치 -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예산편성 등 포함
	39조	세 출 예 산차등	○ 예산편성 우선반영 및 지원규모·보조비율 차등지원 - 지치체간 공동사업 / 지역개발계정 시설복합화 사업
국토 기본법	3조	공동 발전	○ 국가, 지자체는 교류협력 촉진 및 공동발전 도모
지방 자치법	152조	행정 협의회	○ 지자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 ○ 규약정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 거친 후 고시
	159조	지방자 치단체 조합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 ○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위기관 승인

자료 : 김선기 외(2009), 김현호(2011) 등 참조

※ 외국의 지역간 연계협력 제도 : EU의 TCO7)

- 유럽연합의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은 1990년 도입된 Interreg을 시작으로 20여년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음
- 특히, Interreg III(2000-2006)는 창업 5,800건, 기업 및 기관의 전략개발과 기술도입 3,900건, 일자리 창출 및 보호 115,000개 등의 성과를 창출(이원섭, 2011)
- 그 가운데 III A는 국경지역 협력, Interreg III B는 국가간 협력, Interreg III C의 지역간 협력⁸⁾ 등으로 2000~2006년 동안 약 28·8억 유로가 투자되었음

7) EU의 지역간 연계협력 프로그램 외에 프랑스의 지역간 투자협약제도, 일본의 광역경제권 등이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EU의 시책을 언급할 것임

8) 지역간 협력의 운용형태는 지역단위협력(Regional Framework Operation), 개별 협력프로젝트, 네트워크협력 3가지로 구분되었는데, ① 이 가운데 RFO는 지역개발방법 및 프로젝트 기반 활동에 관한 경험을 서로 교환하는 유형으로 최소 3개국(회원국 2개국)으로 구성되었으며, 협력프로그램 예산의 50-80%를 여기에 배정하였으며, ② 개별 협력프로젝트는 최소 3개국(2개국이 회원국)으로 파트너 구성되고, 선도기관의 재원이 40%가 최대이며,

- Interreg III의 목적은 유럽의 지역간에 대규모의 정보 및 노하우의 교환과 지식의 공유를 촉진하여 지역간 결속을 증진시키는 것이었음
- 현재(2007-2013) 유럽연합은 국경지역, 국가간,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협력 프로그램(TCO, 정식명칭은 Territorial Cooperation)을 추진
- TCO는 지난 20여년간 역사적 변천을 거쳐 왔으며, 현재 국경 지역과 국가간 협력은 이전과 같으며, 지역간 협력에 있어 과거 별도로 추진되던 Interreg IV C, Urbact II 등을 통합
- 종래의 Interreg III C가 4가지 프로그램 영역으로 구분되어 실행되었으나 Interreg IV C는 1개의 유럽 전체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었음
- 지역개발관행에서 2가지 집중적인 영역을 지니게 되었는데, 첫째 '혁신과 지식경제', 둘째 '환경과 위험예방'임

구 분	Interreg I (1990-'93)	Interreg II (1994-'99)	Interreg III (2000-'06)	TCO (2007-'13)
국경지역협력	Interreg I	Interreg II A	Interreg III A	Interreg IV A
에너지 네트워크	-	Interreg II B	-	-
국가간 협력	-	Interreg II C	Interreg III B	Interreg IV B
지역간 협력	-	-	Interreg III C	Interreg IV C
특별프로그램	-	-	Interact ESPON	Interact II ESPON II Urbact II

자료 : 이원섭(2011)

- '07-'13년 지역간 협력사업의 총 예산은 87억 유로이며, 전체 구조기금의 2.5%를 차지
- 그 가운데 지역간 협력은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한 경험과 모범사례 교류를 지원하며, '07-'13년까지 Interreg IV C와 3개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4.45억원을 지원
- Interact II : 협력 프로그램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관리, 행정요원 교육훈련

예산의 10-30%가 여기에 배정되었고, ③ 네트워크협력은 최소 5개국의 파트너(3개국은 회원국)로 구성되며, 협력프로그램 예산의 10-20%를 네트워크 협력에 배정되었음

- ESPON⁹⁾ II : 응용연구, 분석, 기법 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 제공
- Interact II : 도시정책의 경험교류, 상호학습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 등 개발
- 유럽연합은 2006년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EGTC(European Grouping of Territorial Cooperation)를 도입
- EGTC는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조직으로 현재 16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23개가 구성을 준비하고 있음

9) European Spatial Planning Observation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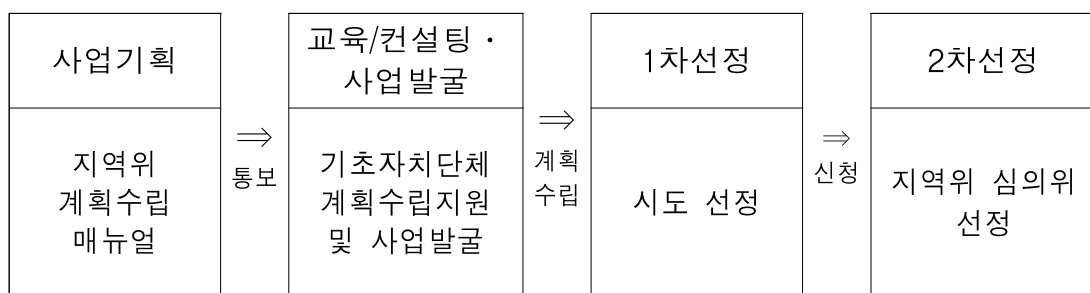
IV.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현황

1. 지역간 협력의 개관

-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연계협력사업 과제를 발굴하여 '10년부터 '11년까지 총 62개 과제에 1,838억원 지원하고 있음(지역위, 2012)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광특회계 계정
기초생활권 (시·군)	-	83억원 (10개)	123억원 (12개, 신규 2개)	지역계정
광역경제권 (시·도)	540억원 (30개)	1,000억원 (46개, 신규 16개)	1,150억원 (46개, 신규 150억)	광역계정
초광역개발권 (광역권간)	67억원 (5개)	148억원 (6개, 신규 1개)	265억원 (7개, 신규 1개+α)	광역계정
합계	607억원 (35개)	1,231억원 (62개)	1,538억원 (67+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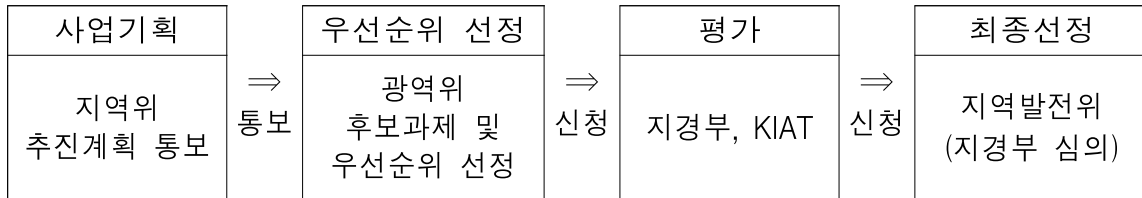
- 지원대상 우수 연계협력사업의 선정은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별 차이
 - 기초는 1차 평가 (시·도 평가), 지역위 중심의 2차 평가를 시행하고 관계 부처협의¹⁰⁾를 거쳐 최종사업을 선정



- 광역경제권은 광역위(우선순위 정해 지역위에 제출), 지경부, KIAT 평가, 지역위 심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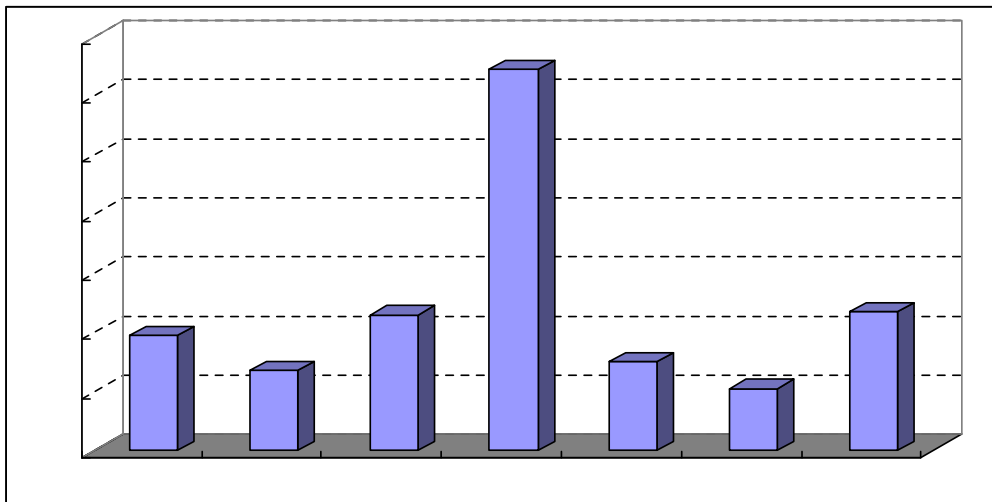
10) 관계부처의 검토기준은 ① 연계·협력도, ② 타당성(기대효과, 구체성, 사업비 및 재원분담의 적정성, 지역발전정책 부합성 등), ③ 유사·중복성임

통해 선정



2. 지역간 연계협력의 현황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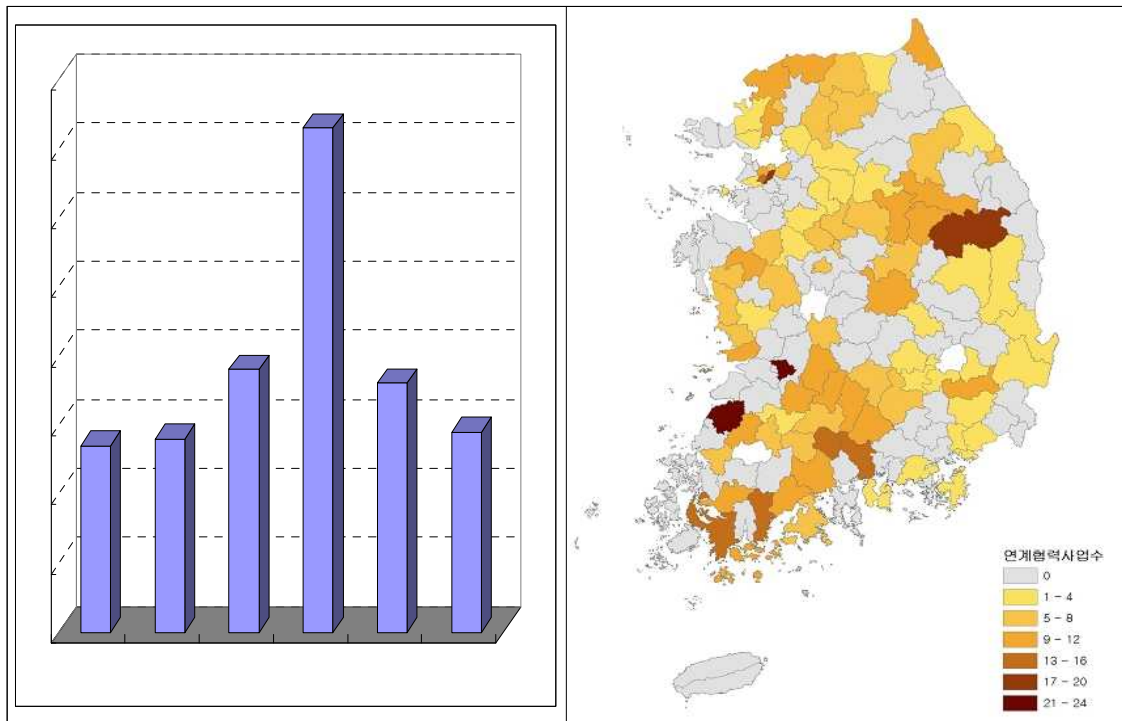
- 지역간 협력현황은 2009년 말에서 2010년 초에 걸쳐 기초생활권 시군이 수립한 계획서를 중심으로 제시
- 2010년 163개 시군이 참여하여, 공동계획 수립 2개, 전국적으로는 339개의 연계협력사업을 발굴
- 상호중복을 허용할 때, 시군 당 평균 연계협력의 사업수는 4.2개에 해당



자료 : 김현호 외(2011)

- 시군 당 평균 연계협력사업의 건수는 호남권이 가장 많고, 수도권이 가장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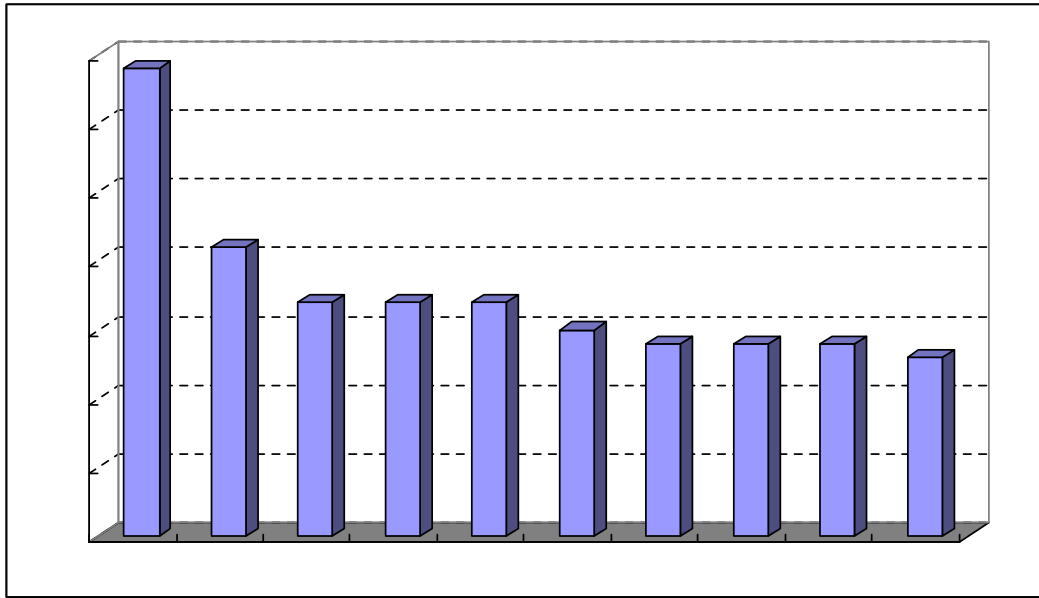
11) 여기서는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범위를 좁혀서 언급할 것임



- 연계협력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균 연계 시군수는 호남권이 3.21개, 동남권이 3.19개의 순을 보이고 있음

권역	사업당 평균 연계도시수
수도권	2.79
강원권	3.11
충청권	2.54
호남권	3.21
대경권	2.17
동남권	3.19

- 연계협력사업 발굴 상위 시군은 호남권의 전주, 고창, 해남, 대경권의 영주, 봉화, 수도권의 군포, 의왕의 순을 보이고 있음



○ 연계협력사업의 성격 및 협력범위

- 내용측면에서 생태·문화·관광(55%)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시·도내 시도내 연계 협력이 57.5%, 시·도간 협력이 42.5%를 차지 (우수사업 40개 경우)



시도간 연계협력
(42.5%, 17개)



- 7개 시도에 걸친 연계협력도 1개가 있으며, 4개 시도에 걸친 연계협력사업이 2개가 있음

시도연계	1개 시도	2개 시도	3개 시도	4개 시도	7개 시도	계
사업수	23	6	8	2	1	40
%	57.5	15	20	5	2.5	100

○ 최종적으로 선정된 '11년 지원 10개 사업 가운데 문화부 소관의 문화·관광이 7개, 생태 환경이 2개, 특화산업 분야가 3개를 차지하고 있음(부처 중복 허용)

- 10개 사업에 42개의 시군구가 관련되고 있음

사업명	지자체	사업 내용	관계 부처
영산강 History Tour (240백만원)	목포 등 8개 시·군	▪ 나루터 계류장 및 부대시설 설치, 황포돛배 건조, 공동 홍보	문화부 (지역계정, 시도자율)
지리산 Eco-Village 조성사 업 (1,568백만원)	남원시 등 7개 시·군	▪ 마을공원 조성, 옛마을 풍경 복원, 소득 연계사업(지역특산물, 공동판 매장 등) 문화시설 조성	농식품부 (지역계정, 시군구자율)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 사업 (400백만원)	전주시 등 3개 시·군	▪ 한지 문화마을 조성, 한지장인학교 운 영,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 등	문화부 (지역계정, 시도자율)
중부내륙 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780백만원)	영월군 등 6개 시·군	▪ 시군간 패키지 관광상품화, 공동 홍 보·마케팅	문화부 (지역계정, 시도자율)
생태관광 금강연계 사업 (300백만원)	부여군 등 6개 시·군	▪ 금강권 대표상품개발(관광상품, 역 사문화탐방로, 식물원, 자연사박물관 등), 홍보마케팅 확대	문화부 (지역계정,시 도자율)
내포문화 숲길 조성(1,936 백만원)	서산시 등 4개 시·군	▪ 테마길, 등산로·연결도로 정비, 대피 소, 쉼터, 표지판 등 조성	문화부, 산림청(지역 계정, 시도자율)
지질 관광코스 및 프로그 램 개발 (100백만원)	영월 등 4개 시·군	▪ 지질자원, 박물관 등 연계 지질관광 코스 개발, 공동마케팅	문화부(지역 계정, 시도자율)
중부내륙 숲 관광 Mega City 조성(985백만원)	영월군 등 5개 시·군	▪ 중부내륙산악권 테마 숲 조성을 통 한 관광메가시티 조성	문화부(지역 계정, 시도자율)
사과 공동가공제품화 및	봉화, 영양,	▪ 명품사과 공동가공 및 R&D지원으	농식품부

사업명	지자체	사업 내용	관계 부처
농기업 창업보육(1,220백만원)	영월, 청송	로 농기업 30개 육성	(지역계정, 시도자율)
헴프(Hemp) 지역특화산업 육성(750백만원)	정선, 동해, 평창	천연소재인 대마(헴프)를 활용한 제조업, 관광산업 육성	농식품부, 지경부 (지역계정, 시도자율)

자료 : 지역위(2012년) 내부자료

○ '2012년은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2개 모두가 농식품부 소관사업으로 추진

사업명	지자체	사업 내용	관계 부처
남중권 농산어촌 생태문화 관광연계 (2,400백만원)	고흥,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남해,사천,진주	- 농산어촌 거점마을별 테마공원 등 관광인프라 확충 - 남중권 9개 시군의 통합체험코스 개발	농식품부 (지역계정, 시군구자율)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 (1,225백만원)	남원시 등 7개 시군	임실(시인마을), 순창(섬진장터), 남원(소리마을)의 마을경관 정비, 연계루트 개발	농식품부 (지역계정, 시군구자율)

자료 : 지역위(2012년) 내부자료

【참고】 충청권 연계협력사업의 여건 및 현황

1. 충청권 연계협력사업의 여건

□ 충청권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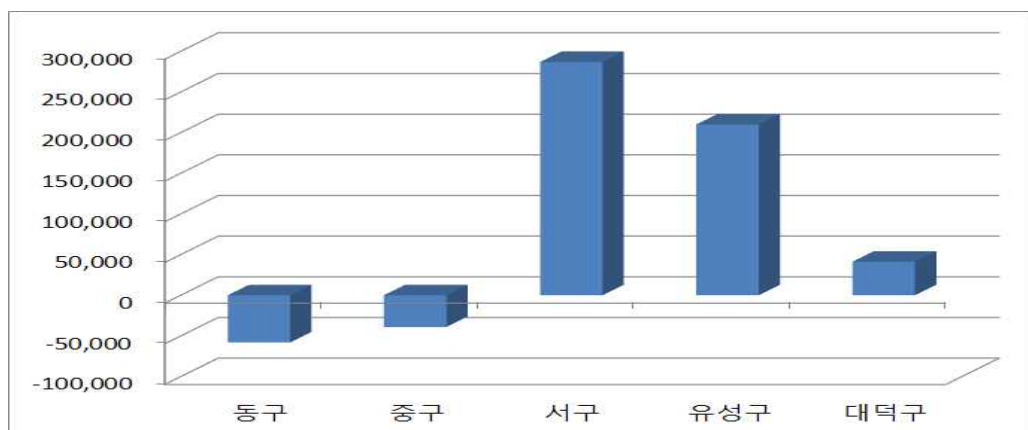
- 지난 20년간 : 대전, 충북은 인구증가, 충남은 감소

행정구역	1990년	2010년	인구변화	증감률
대전광역시	1,049,122	1,490,158	441,036	42.0%
충청북도	1,389,222	1,495,984	106,762	7.7%
충청남도	2,013,270	2,000,473	-12,797	-0.6%

□ 대전광역시

- 핵심발전지표인 인구가 지난 20년간 44만명의 증가를 경험
- 특히 서구, 유성구는 독자적인 지역발전의 동인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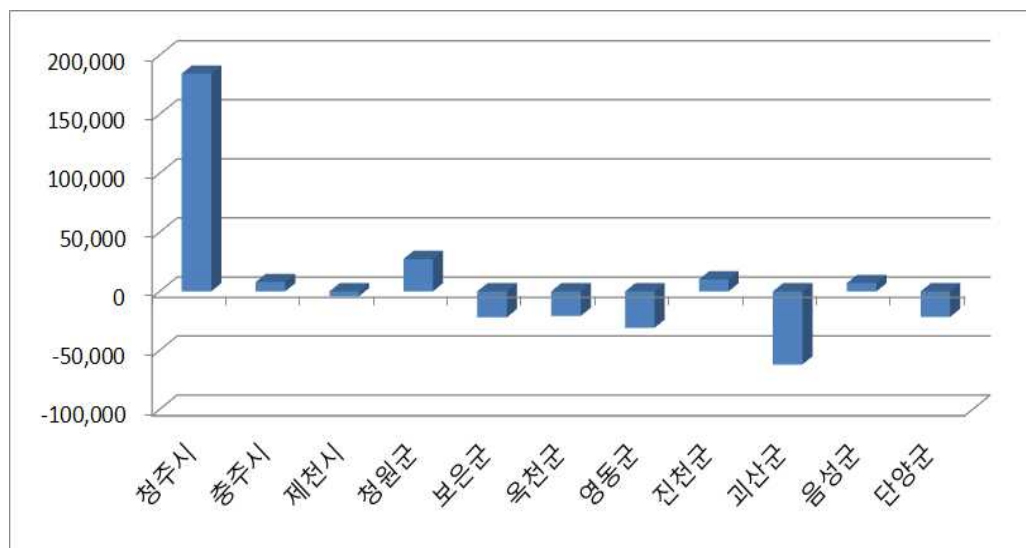
행정구역	1990년	2010년	인구변화
대전광역시 총인구	1,049,122	1,490,158	441,036
동구	302,445	244,344	-58,101
중구	293,629	254,577	-39,052
서구	211,675	498,524	286,849
유성구	79,260	289,303	210,043
대덕구	162,113	203,410	41,297



□ 충청북도

- 청주, 충주, 청원, 진천, 음성 등이 발전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여타 지역은 연계협력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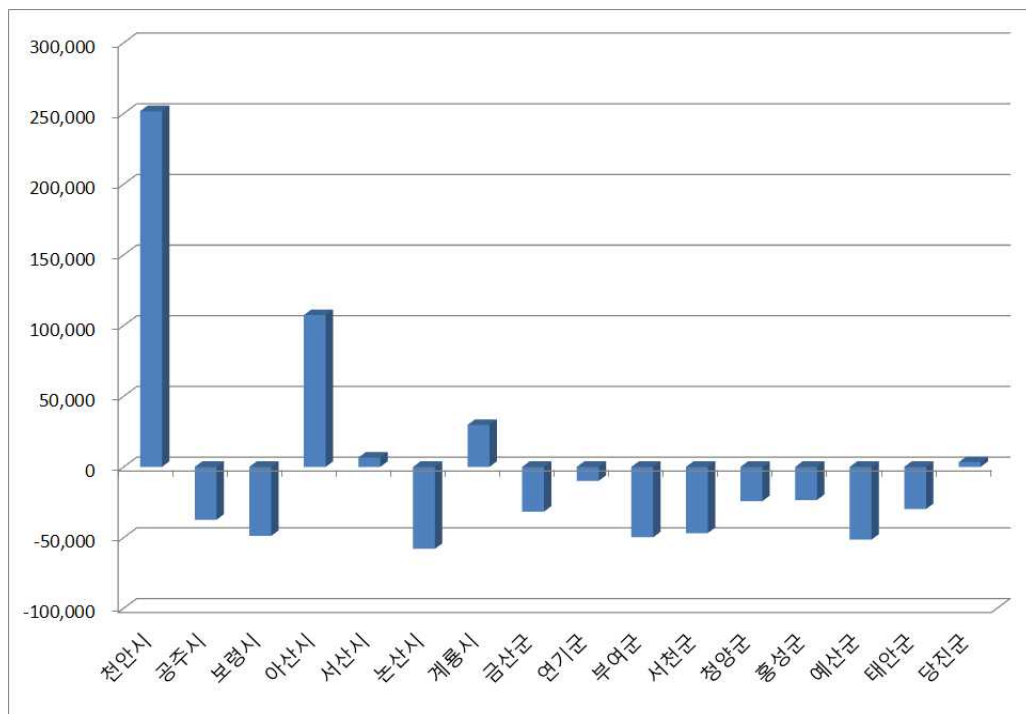
행정구역	1990년	2010년	인구변화
충청북도	1,389,222	1,495,984	106,762
청주시	477,663	662,102	184,439
충주시	193,515	201,361	7,846
제천시	137,660	133,626	-4,034
청원군	114,641	142,017	27,376
보은군	52,263	30,311	-21,952
옥천군	70,110	49,295	-20,815
영동군	76,802	45,974	-30,828
진천군	49,232	59,324	10,092
괴산군	93,046	31,116	-61,930
음성군	74,674	81,645	6,971
단양군	49,616	28,009	-21,607



□ 충청남도

○ 천안, 아산, 서산, 계룡, 당진은 인구가 증가, 기타 지역은 인구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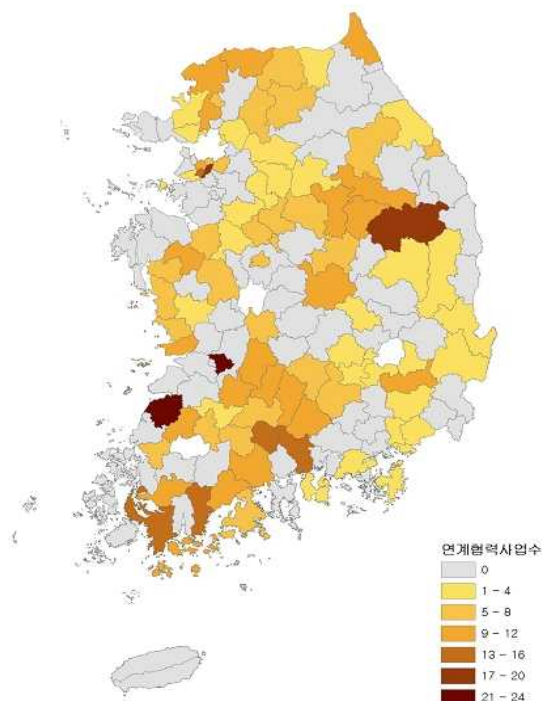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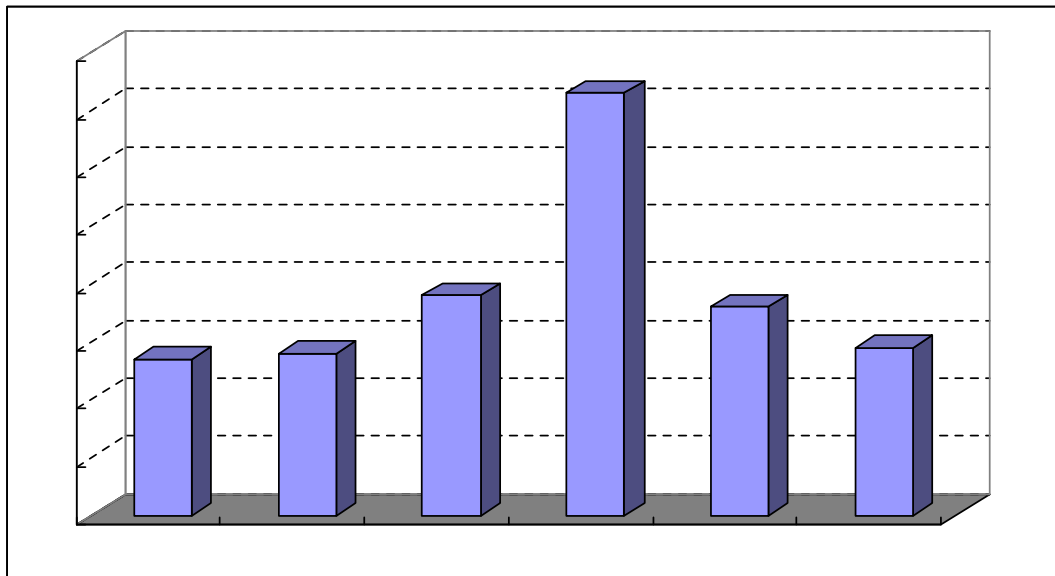
행정구역	1990년	2010년	인구변화
충청남도	2,013,270	2,000,473	-12,797
천안시	313,572	565,201	251,629
공주시	158,030	120,660	-37,370
보령시	145,975	97,091	-48,884
아산시	164,882	272,282	107,400
서산시	148,484	155,082	6,598
논산시	175,674	117,686	-57,988
계룡시	11,684	41,395	29,711
금산군	84,058	52,442	-31,616
연기군	90,493	80,542	-9,951
부여군	116,898	67,102	-49,796
서천군	100,500	53,620	-46,880
청양군	53,744	29,506	-24,238
홍성군	105,361	81,876	-23,485
예산군	128,694	77,209	-51,485
태안군	83,489	53,673	-29,816
당진군	131,732	135,106	3,374



2. 충청권 연계협력사업의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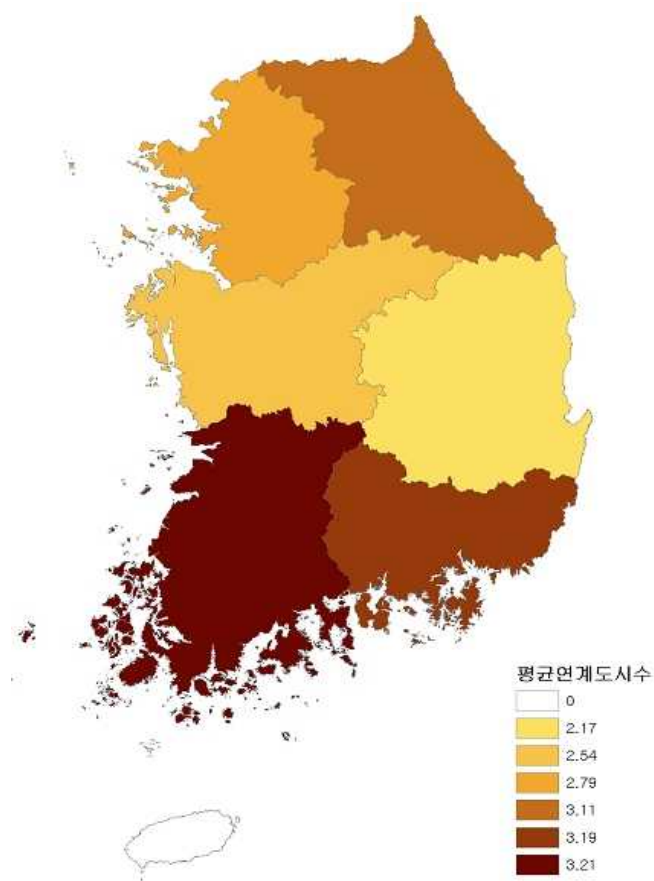
1)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 시군 당 평균 협력사업 발굴, 계획건수 : 3.8개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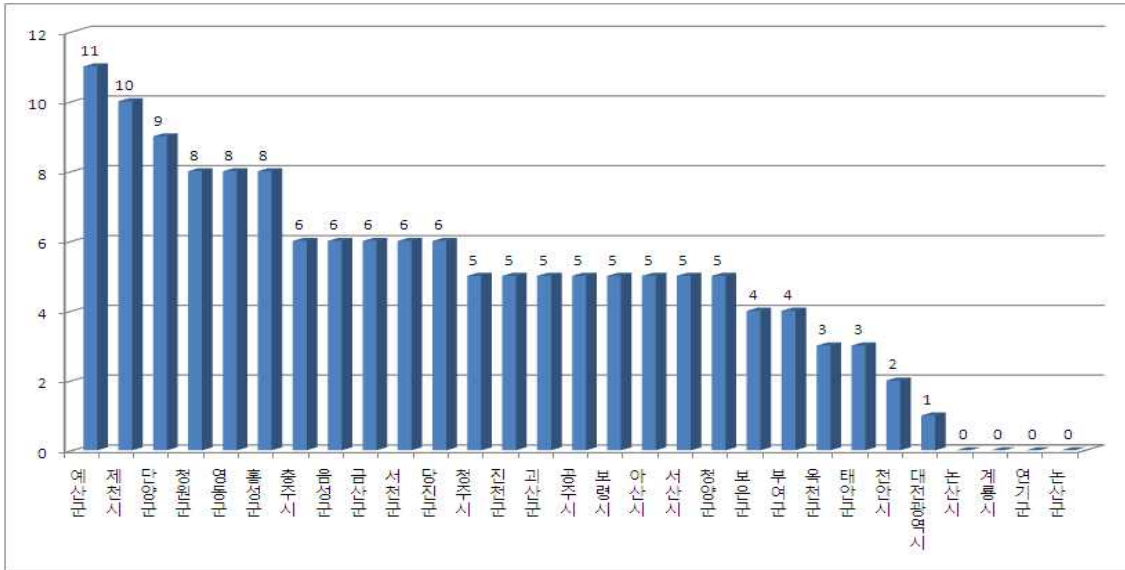


○ 사업 당 평균 연계 시군수 : 2.54개 지자체가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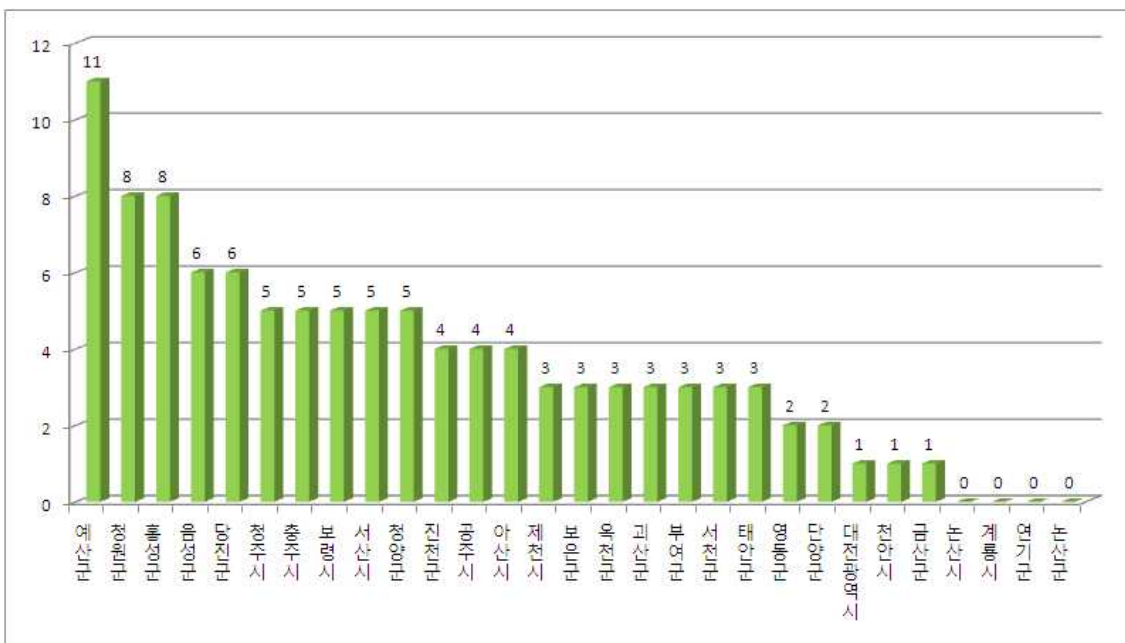
권역	사업당 평균 연계시군수
수도권	2.79
강원권	3.11
충청권	2.54
호남권	3.21
대경권	2.17
동남권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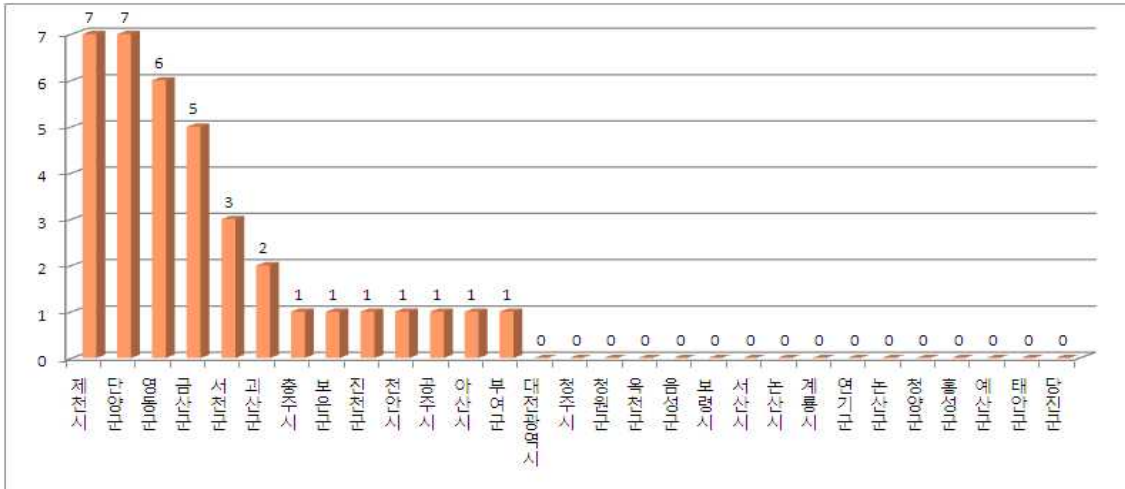
○ 충청권 시군별 연계협력사업의 수



○ 시군별 충청권 내 연계협력사업의 수



○ 시군별 충청권 외 권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수



○ 기초생활권 우수 연계협력사업 (2011년) : 3개가 해당

사업명	지자체	사업 내용	관계 부처
중부내륙 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영월군 등 6개 시군	▪ 시군간 패키지 관광상품화, 공동 홍보·마케팅	지역계정 (시도자율)
생태관광 금강연계 사업	부여군 등 6개 시군	▪ 금강권 대표상품개발(관광상품, 역사문화탐방로, 식물원, 자연사박물관 등), 홍보마케팅 확대	지역계정 (시도자율)
내포문화 숲길 조성	서산시 등 4개 시·군	▪ 테마길, 등산로·연결도로 정비, 대피소, 쉼터, 표지판 등 조성	지역계정 (시도자율)
영산강 History Tour	목포 등 8개 시·군	▪ 나루터 계류장 및 부대시설 설치, 황포돛배 건조, 공동 홍보	지역계정 (시도자율)
지리산 Eco-Village 조성 사업	남원시 등 7개 시군	▪ 마을공원 조성, 옛마을 풍경 복원, 소득 연계사업(지역특산물, 공동판매장 등) 문화시설 조성	지역계정 (시군구 자율편성)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	전주시 등 3개시군	▪ 한지 문화마을 조성, 한지장인학교 운영,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 등	지역계정 (시도자율)
지질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영월 등 4개 시·군	▪ 지질자원, 박물관 등 연계 지질관광코스 개발, 공동마케팅	지역계정 (시도자율)
중부내륙 숲 관광 Mega City 조성	영월군 등 5개 시군	▪ 중부내륙산악권 테마 숲 조성을 통한 관광메가시티 조성	지역계정 (시도자율)
사과 공동가공제품화 및 농기업 창업보육	봉화, 영양, 영월, 청송	▪ 명품사과 공동가공 및 R&D지원으로 농기업 30개 육성	지역계정 (시도자율)
헴프(Hemp) 지역특화산업육성	정선, 동해, 평창	▪ 천연소재인 대마(헴프)를 활용한 제조업, 관광산업 육성	지역계정 (시도자율)

2)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 2010년 최종 선정 30개 과제 중 6개인 20%를 차지¹²⁾

구분	사업명
수도권	고용창출형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지능형 로봇서비스산업 지원사업
	한방약초 신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협력 기반조성
충청권	미래사회 적응을 위한 대중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
	New-IT 부품 패키징산업 육성사업
	태양전지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전자전달증대장치 모듈 연구 개발
	비금속광물자원을 활용한 저탄소 산업육성사업
	New-IT 부품 및 부품산업용 금형 열처리 기술지원 사업
	생체진단 의료기기용 핵심센서 및 키트 개발사업
호남권	글로벌 그린폴드메카 구축사업
	헬스케어 소재산업의 글로벌화 육성사업
	eco-인쇄전자 부품소재 시험양산 기술개발사업
	고비강도 소재응용 그린부품 실용화사업
	녹색자원을 활용한 Green Textile 산업육성사업
	천일염 공동브랜드 및 소비자 직거래 운영지원 사업
동남권	선박의 안전 향해를 위한 근거리/원거리 RADAR 시스템 개발
	BLCD모터 표준화 및 표준모델보급 사업
	전자파환경 유해성 대책 Green Belt 사업
	선박 배기가스의 Nox 및 분진 고효율 저감장치
	부생가스를 이용한 녹색기술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대경권	대경권 블루골드 클러스터 구축사업
	BY2C외씨버전 4색 루트 개발사업
	텐탈소재 및 치과기공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대경부품소재 상용화 및 구조전환 지원사업
	인플루엔자 백신원료 맞춤형 생산시설 구축
	힐링용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강원권	차세대 마그네슘 제련 국산화를 통한 초경량부품소재개발 광역연계사업
	DMZ 인접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리공원(Geopark) 조성 사업
제주권	증강체험형 개별/관광/테마파크 상품 생산기반 확립
	제주유배문화의 녹색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사업

○ 2011년 16개 과제 중 3개와 관련

- 12) 2009년 12월~2010년 1월간 광역 연계·협력사업 제안서를 공모한 결과, 총 329개 사업 접수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수도권(44건), 충청권(91건), 호남권(34건), 대경권(22건), 동남권(110건), 강원권(22건), 제주권(6건)이며, 관계 중앙부처 협의 및 세부사업기획서 제출(2010.3) 등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 60개 사업이 지역위 주관 심사위원회 대상 과제로 채택

사업명	관련 지자체	'11년 지원액(억원)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지원 사업	충북, 대전, 충남	45
리튬 이온전지 부품소재 국산화	충남, 충북, 대전	35
가축병제어 Bio Security System 개발	경북, 충남, 강원	50
터치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광주, 전북, 전남	45
탄소섬유 기반 해양 스포츠·레저장비 개발	전북, 전남, 부산	35
3G-Bio 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 사업	전남, 광주, 인천	30
구조용 부품·소재 상용화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사업	전남, 강원, 대구	35
스마트프로덕트 신산업육성사업	경기, 부산, 서울, 경북	30
IT 융합 금형기술 고도화사업	대구, 경북	35
백두대간 Greenmine 비즈니스 구축사업	경북, 강원	30
수송용 소재산업 기술개발사업	대구, 경북, 부산	20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사업	경남, 부산, 울산	35
대중소 연계형 이차전지 핵심소재 실용화사업	울산, 경남, 경북, 구미	30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IT 융복 로봇 생태계 조성	부산, 경남, 경북	23
해양플랜트 Subsea 초고압 시험인증 구축사업	경남, 부산, 울산	20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	제주, 경기, 경북	50

V.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실태¹³⁾

1. 대청호 둘레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 사업의 취지

- 대청호에는 많은 관광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행정구역이 나뉘어 이러한 자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연계 사업이 없었으며, 있더라도 시도간의 협력이 있어야만 지속가능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으나, 본 사업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 주요 추진내용 및 특성

- 지식경제부 및 광역협력지자체(대전광역시, 충청북도)가 참여하는 녹색생태관광사업은 대청호를 중심으로 즐길거리의 증대 및 지역주민의 생활기반 강화를 위한 녹색체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 본 사업은 2013년 4월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 아직 다수의 사업이 남아있고 사업의 성과를 보기에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임
-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생태체험로 일체화 정비사업, 청남대 산림욕장 정비 및 자연거대여시스템 구축사업은 실시계획까지만 진행된 상황이며, 지경부와 협의하에 사업을 이월시켜 2011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에 있음
- 1차년도 사업(2010~2011년은)과 관련하여 다양한 코스 개발과 팸투어 사업,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 대청호의 홍보를 위한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 대청호 오백리길 라디오티어링 대회의 개최는 방송사 및 언론사를 통한 대청호 알리기를 성공적으로 마침
- 관광객수의 증가가 목표치인 5만명을 훨씬 상회하는 58만 5천명으로 증가(2011년 행안부, 컨설팅 자료)

2.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

13)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이 아직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엄밀한 잣대를 가지고 추진실태를 분석한 것은 없는 실정이며, 다만 대부분이 연계협력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컨설팅 측면의 실태가 분석되고 있는 형편. 여기서는 지역위의 선별적 지역실태조사, 행안부의 컨설팅 자료를 토대로 소수 사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분석할 것임

○ 사업의 취지

- 전주한옥마을, 한지산업지원센터, 완주 대승한지마을, 한지장인(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기능보유자 홍춘수)등과 연계, 한지의 맥을 보존하여 한지고장으로서의 명성을 재현, 특화하고 한지문화권관광벨트화 기반시설 구축

* 주요사업 위치 : 전주시 한지산업지원센터,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임실군 청웅면 일원

○ 주요 추진내용 및 특성

- 주요사업 내용 : 닥나무재배단지 조성, 한지마을 복원, 전문 인력양성 등
 - 전통한지 체험장 운영 : ① 체험 키트 프로그램 개발 - 12종(한지제조체험 키트 : 2종: 외발, 쌍발뜨기; 한지문화체험 키트 : 10종(가면, 연필꽃이, “한벽루” 사각접 받침 등), ② 전통한지 체험장 운영 : 4,455명- 한지제조 2,005, 한지문화 2,450)
 - 한지 전문인력 양성 : ① 한지제조 전문인력 양성교육 - 2회, 40명, ② 한지공예·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교육 : 2회 36명, ③ 디자인 워크숍 『곤약을 활용한 한지아트』 : '11. 4월, 40명
 - 한지제품 연구 및 디자인 개발 : 신그린 섬유(상피사) 개발 및 특허 출원, BT 융합기술 첨단 펄핑 기반 기술 확보, 한지상품 및 포장지 디자인 개발, 한국 관광벨리 유도를 위한 한지 관광 패스포트 & 스탬프 개발연구
 - 한지문화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공공인프라 구축 : 한지문화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참여, 50000명), 기획전시(4개 기획전), 터키 이스탄불 전주한지문화제 개최 : '11. 9. 10 ~ 9. 17
 - 임실의 닥나무 재배(1차), 임실(한지장)·완주(한지마을)·전주(한지생산업체)의 한지생산(2차), 한지상품(전주) 및 체험프로그램(완주) 개발·운영(3차)의 사업내용에 대해 임실의 한지생산, 완주의 한지체험, 전주의 한지체험 및 R&D, 상품개발이 성과를 창출
- ※ 한계점이라면, 지역별 사업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느낌이 있지만 이점은 향후 보완될 것으로 판단

3. 영산강 History Tour

○ 사업의 취지

- 영산강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고대문화 역사자원(설화, 인물자원 등)

의 공동개발 및 상품화를 통한 관련 지역의 매력창출

* 주요사업 위치 : 목포·나주시, 함평, 무안, 영암, 화순, 장성, 담양군

○ 주요 추진내용 및 특성

- 주요사업 내용 : 계류장설치 및 부대시설(7개소), 전통한선(황포돛배) 건조 3척, 나루터 등 대 3개소, 홍보책자 제작 등
- * '11년 사업내용 : 시·군 공동책자 제작(스토리텔링 형식), 스마트폰 앱 개발, 황포돛배 운항에 따른 나루터 등 편의시설 설치
- 2010~2014년까지 총사업비는 7,560백만원(국비3,720, 지방비3,840)임
- 사업의 기획이 '93년 구성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10년 당시 의장시였던 나주시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기획하여 관련 시·군 동의를 얻어 제출
- 이를 토대로 영산강 history Tour의 공동개발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
- 8개 시군 관광홍보 사이트 연계 및 공동 홍보
-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수립한 자전거길 투어 루트를 영산강 History Tour와 연계해서 개발
- 향후 공동사업의 추가적 발굴 및 예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4. 지리산권 관광개발 연계협력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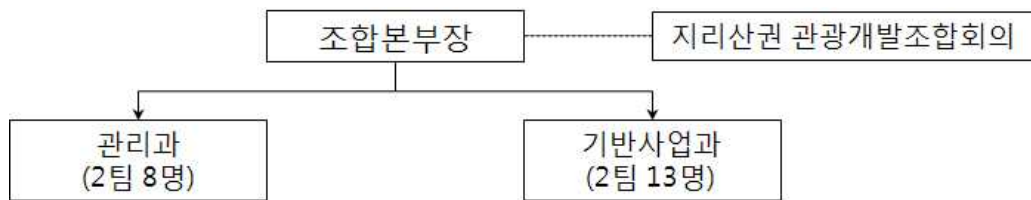
○ 사업의 취지

- 전남, 전북, 경남의 7개 시군(4,470.9km²)이 공유하고 있는 생태자연 자원인 지리산의 공동개발을 통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

* 주요사업 위치 : 남원시, 장수군(전북), 곡성군, 구례군(전남),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경남)

○ 주요 추진내용 및 특성

- 사업의 추진은 지자체 조합인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며 21명으로 구성
- * 공무원 파견을 통한 2년 단위 순환보직 근무 체계



- 총사업비는 67,820 백만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가 60.7%를 차지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고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상품개발	2,382	1,429	953	
	통합축제	280	-	280	
	방문의 해	3,640	1,750	1,890	
	7품 7미	4,122	2,428	1,694	
관광기반 정비	농촌문화관광마을	15,600	9,319	6,281	
	타운투어리즘존	8,500	4,680	3,820	
	관광숙박시설	3,600	1,983	1,617	
	Eco-Village	9,800	7,840	1,960	
교통안내 체계개선	관광순환로조성	5,066	3,003	2,063	
	교통체계개선	-	-	-	시군분담금
	관광정보화사업	1,330	630	700	
자연 환경 보전	환경영향모니터링체계구축	-	-	-	시군분담금
	경관관리체계 구축	-	-	-	시군분담금
지역사회 참여촉진	갈등관리	-	-	-	해당없음
	혁신체계	-	-	-	시군분담금
	아카데미운영	13,500	8,100	5,400	
총 사업비규모		67,820	41,162	26,658	시군분담금 제외

출처 : 지리산관광개발조합 홈페이지(<http://www.jirisantour.go.kr/>)

- 주요사업은 ①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상품개발개발, 통합축제 개최, 지리산권 방문의 해 추진, 지리산권 7품·7미 육성), ② Eco-Village 사업, 숙박시설 조성 등 관광기반정비, ③ 관광교통 및 안내체계 및 관광순환로 조성, ④ 환경영향 모니터링 및 경관관리체

계 구축 등임

- 시군별로는 다음의 사업을 추진

시군	주요사업계획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조성, 남원 사랑정원 조성
장수군	대곡제 관광개발, 방화동 레포츠 관광지화
구례군	역사문화 체험단지 조성, 산수유 테마파크 조성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 섬진강변 체험학습관 조성
하동군	야생녹차공원 조성, 청학동 관광자원개발
산청군	남상전통한옥체험마을 조성, 중산관광지 관광센터화
함양군	생태체험단지 조성, 상림주변 관광개발

VI. 지역간 연계협력의 성과 및 한계

1. 지역협력의 성과¹⁴⁾

1) 지역간 연계협력 제도기반 구축

- 법적인 기반으로 지역간 연계협력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군특법의 규정을 마련하고 구비
- 지자체의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하기 시작하는 제도기반 구축

2) inter-place based 계획수립

- 종래와 달리 중앙 제시적 사업의 지방적 추진이 아니라 시군 지역에 기초한 자발적 사업을 발굴, 기획
- 2개의 공동계획수립, 339건의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창출

3) 지역간 협력발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고조

- 행정구역 단위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간의 협력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향상되어 시군별로 지역협력사업의 발굴
- 많은 시·군에서 (부)단체장이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발굴에 관심을 가지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 A, B 시군의 경우 (부)단체장이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향후 방안을 지시하기도 함

4) 지역간 협력 범위의 확대

- 행정구역 단위의 발전에서 벗어나 연계협력의 범위가 확대
- 7개 시도에 걸쳐 10개의 시군이 관련하는 사업이 있음
 - 우수 연계협력 40개 가운데서는 7개 이상의 시군이 관련되는 경우가 15%, 6개가 10%, 5개가 7.5%를 차지

14) 여기서 언급하는 성과와 후술하는 한계는 시군의 연계협력사업의 발굴, 추진과 함께, '11년에 시행한 권역별 연계협력 순회토론회에서 나온 지자체의 의견을 토대로 하였음



5) 사업발굴, 추진을 위한 초보적 거버넌스 구축, 가동

- 기획실을 중심으로 기획파트, 예산파트, 7개 사업군에 관계된 실무자를 중심으로 연계협력사업 발굴, 기획 TF 구성, 운영
- 시군 뿐 아니라 지역 주민, 내 외부 전문가, 시도 연구원으로 만들어지는 초보적 채널 구축, 가동

6) 협약, MOU 등 지역간 협력 증가

- 339개 연계협력 사업의 발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지역간 협력 증가
- 시군 상호간의 실무담당자간의 미팅, (부) 단체장의 만남, 시군의 협력 발전에 대한 MOU, 협약 등의 증가
-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상호지역 및 공동지역 발전에 대한 이해의 증가

2. 지역간 연계협력의 한계

1) 권역, 지역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부족

-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 문화, 생태, 산업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석이 부족
-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의한 연계협력 사업의 발굴 노력 부족
- 특히, 지역이나 권역의 자발적인 노력 및 지역주민의 참여 동기유발 부족

2) 사업의 한시적 추진 및 계획의 졸속

- 시군의 기초생활권 계획수립 마감, 연계협력 사업의 평가, 예산 반영 등을 염두에 두고 한시적 연계협력 사업의 발굴을 추진
- 비교적 많은 절차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시군 연계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절대적인 시간의 제약
 - 상당수 시군의 의견에서도 사업의 발굴 등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연계협력사업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촉박성과 한시성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
 - 어떤 시군에서는 그동안은 학습과 연습과정이라고 할 정도로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인식과 사업의 추진이 본 궤도에 오르려고 하니 제한 시간이 임박했다고 지적하기도 함
- 연계협력에 대한 단발성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졸속이며, 장기적 관점의 계획이 미 수립
 - 사업발굴 단계에서 사업 주도 시군의 업무부담 집중으로 먼저 나서기를 꺼림

3) 지역간 결속력이 약한 추진체계

- 사업집행 과정에서 의장 시군의 부담이 크고 매년 의장 시군이 바뀔에 따라 통일성 있는 업무추진 애로
 - 조합이나 협의회 사업 추진시, 지자체간 갈등, 조정 시스템 부재
- 시군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차원의 연계협력 사업 지원체계 미구축
 - 상당수 권역에서 시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해 주기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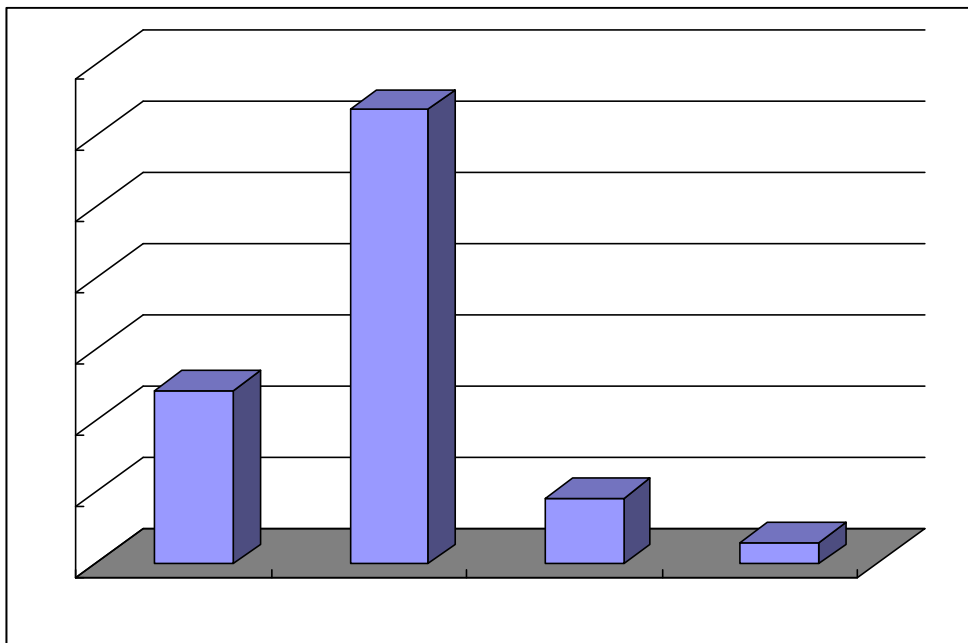
“다른 시군과 연계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시군을 찾아가는 경우 상대자나 파트너가 없어, 이리저리 다니다 결국 해당 부서가 없어 애로를 겪는 사례가 많다”고 함
- 시군이 협력해서 강력한 사업추진 드라이브를 추동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 필요
 - 해당 시도내의 기초지자체간의 협력의지, 협력정보의 매개, 파트너 연결 등 시군간의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4) 부처간 연계협력사업의 결여 및 화학적 협력의 부족

- 연계협력사업이 문화관광부 소관의 사업에 편중(10개 중 7개가 문화부 관련)
 - 상대적으로 부처의 예산확보가 용이한 문화관광, 농식품 분야에 집중되어 사업을 추진

- 각자가 해당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연계하는 관광(63.5%) 등 낮은 수준의 협력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예산 지원 후에는 공동의 사업명이나 테마 아래, 해당지역의 사업을 각자 추진하는 예산확보 측면의 협력도 존재
- 특화자원 활용, 산업분야 협력은 24.2%, 환경 분야의 협력은 9.1%에 그침

<그림 14> 시군의 지역간 협력의 내용



5) 연계협력 사업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 미흡

- 2011년 163개 시군에서 339개의 연계협력사업을 발굴
 - 지역당 평균, 4.2개의 사업을 발굴하고, 심지어 20개 이상을 발굴한 지역도 7개 시군에 이름
-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에 대한 컨설팅, 점검, 등 성과관리에 대한 아무런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없는 실정
 - 339개의 사업은 고사하고, 우수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된 10개의 사업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후적 조치가 없음
- ※ 기초생활권에서 추진하는 연계협력사업은 방치된 영역이기도 함
-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시군의 정책적 신뢰가 상실된 상태이기도 함

- 연계협력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2010년 초에 선정한 우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대한 정부의 시상도 2011년 11월에 이루어짐

- 사후관리를 포함한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업무 매뉴얼 마련 및 보급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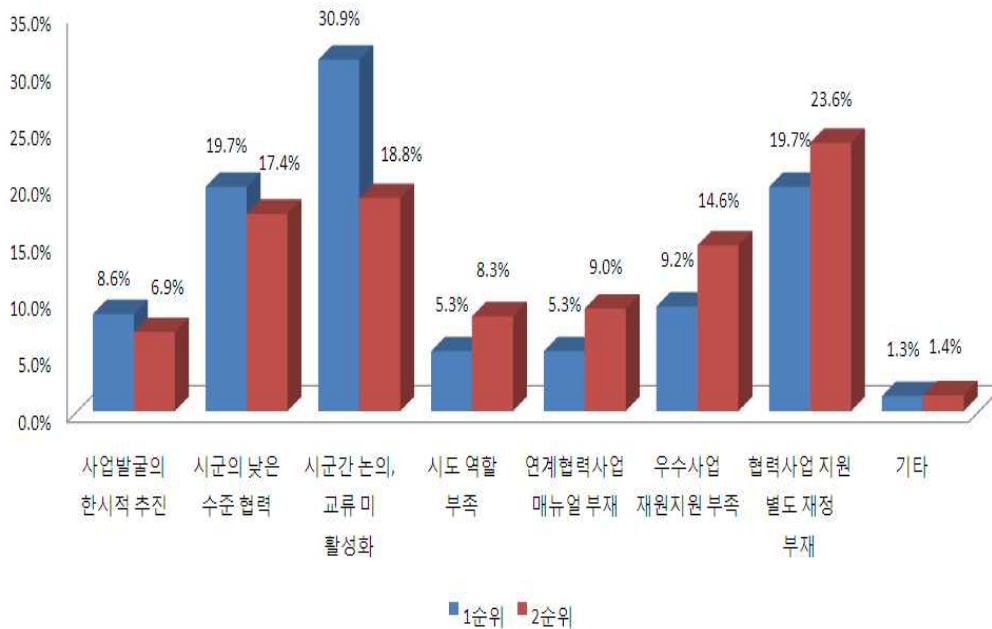
6) 연계협력의 지속적인 교육, 컨설팅 지원 부족

- 연계협력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지역위, 행안부가 2차에 걸쳐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
 - 2010년 초 계획 수립시 중앙부처 및 시도, 대학, 연구원 등 전국의 전문가가 참여
- 그러나 연계협력사업의 사업 추진이 2년이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이 거의 부재
 - 시군의 현실은 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설명, 컨설팅 등의 제공이 필요

7) 재원지원의 안정성 결여

- 규모의 경제에 의한 지역간 연계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군간 연계협력에 대한 별도의 재원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수단이 부재
- 현재 시군 발전에 지원되는 재원은 주로 시도 자율배정, 시군구 자율배정으로 구성
 - 시도 자율배정 및 시군구 자율배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구역 단위의 사업에 대해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의 특성을 보유
 - 201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도 시군의 경우, 연계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계정의 부재를 1순위 19.7%, 2순위 23.6%로 응답하고 있음
 - 시군 실령을 잡아먹는 예산배분 방식 대신 협력계정을 편성한 다음 시군의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

<그림 15> 시군 협력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출처 : 기초생활권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8)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한계의 종합¹⁵⁾

- 사업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한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분야	문제점
지역자원에 대한 치밀한 조사 부족	- 전반적으로 각 지역에 산재한 지역자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 - 지역의 인문·자연환경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여 지역이 가진 자원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계획수립 촉박 / 장기계획 부재	- 대부분 지역에서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여, 단기적 계획 수립에 치중하여, 장기적 관점의 계획(마스터 플랜, 로드맵 등)이 부재 -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
협력적 추진체계 미구축	- 지리산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계협력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실정임 - 각 시군이 협력해서 강력한 사업추진 드라이브를 추동할 수 있는 조직과 구조가 필요

15) 2011-2012년 지역발전위원회 순회토론회 등의 내용도 추가적으로 고려

재정지원 및 성과관리 미흡	-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조직, 예산, 법규의 부재 - 연계협력사업의 지원을 위한 광역특구지정 제도 등 권역단위 지원체계 부재 - 연계협력사업 성과평가 및 관리체계 미흡
연계협력 이해 부족 / 인적자원 역량부족	- 연계협력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이 부족함 - 연계협력사업에 참여할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또는 제도가 없음
홍보 부족	- 각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효과적 홍보가 부족하여 대내외적 인지도가 매우 낮음 - 지역 생산품을 연계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부재

VII.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개선과제

1. 연계협력사업의 상시적 추진

- 협력에 의한 지역발전은 시간을 정해두고 마감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 항구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특징을 지님
- 계획수립 단계에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경우 협의조정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상시적 사업발굴체계가 필요
 - 매년 사업의 발굴, 협의·조정, 합의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화를 성사시키는 상시적 절차가 필요
- ※ 기초생활권발전 5개년계획 수립시 계획수립기간내 한시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함으로써 발굴 건수에 비해 사업계획의 충실도와 실현가능성 등이 취약
-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안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시도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중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2. 지역간 연계협력 프로그램의 제도화

- 연계협력사업을 지속적, 효과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의 InterregⅣ와 같은 제도적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
 - EU는 제도적 프로그램을 통해 행정, 재정, 기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정책 실효성 제고
 - 연계협력 프로그램의 운용을 위해서는 공모 프로그램 뿐 아니라 추진조직, 기금, 제도 등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단기적으로 현행 체제에서 운용이 가능한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시범 공모사업을 추진
 - 사업유형별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지방에 전파함으로써 연계협력사업의 효과 및 협력문화를 확산
 - 선도사업과 별 차이없이 추진되고 있어¹⁶⁾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취지 달성이 어려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지원 축소를 통한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활성화 추진
- 장기적으로는 제도화된 연계협력 프로그램의 추진 시스템을 체계화

16) 7개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의 공통된 견해(「지역과 발전」 '11년 가을호 참조)

- 지역위나 기타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관장하여, 프로그램의 국제화시는 소관 부처에서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운영체계 구축
- 제도적 프로그램의 구축을 통해 남북지역간 협력, 나아가 동북아 국경지역간 협력발전을 지원

3. 연계협력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지원

- 효과적인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행정구역단위의 재원지원이 아닌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재원마련이 필요
- 현재는 지자체의 실링 내에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에 대한 유인동기가 부족
- 그마저 재원지원의 소규모라서 지자체 입장에서 별다른 유인이 되고 있지 못함
- ※ '11년 지원의 경우 : 86억원이 10개 사업에 관계하고 있는 42개 지자체에 지원되고 있어, 한 사업당 평균 금액이 8.6억원이며, 사업당 5.5개의 시군이 관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의 시군에 지원되는 금액은 고작 1.6억원임
-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지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의 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

대안	내용
1안 : 광특회계에 연계협력계정 신설	-광역경제권 시도간 연계사업 및 기초생활권 시군간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에 연계협력사업 반영 비율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가능 ¹⁷⁾
2안 : 지역개발계정 중 시도자율편성사업에 기초생활권연계협력 분야 신설	-시도자율편성 시군 예산배정에서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우대조치 -지역위(행안부)-시·도가 매년 자치단체의 익년도 연계협력사업의 계획을 검토하여 시행계획 반영여부를 결정
3안 : 특정 재원의 연계 및 설치 ¹⁸⁾	-지방재원의 활용 : 지역상생발전기금 -중앙재원의 활용 : 기금 및 특별회계

17) 부처별 신규사업 예산편성 시 5%(예시) 정도의 연계협력사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

4. 연계협력사업 사후관리 강화

☐ 점검 및 컨설팅

- 권역별 연계협력의 추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에서는 연계협력의 추진에 대한 사후점검이 필요성이 많음
 - 2010년 초 시군이 발굴, 제시한 339개의 연계협력 사업은 물론, 재원의 추가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10개의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점검, 컨설팅이 다소 미약
- 사후점검은 지역위, 행안부를 중심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
 - 지역발전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위 및 행안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국책 연구원, 시도 연구원, 대학교수 등으로 컨설팅 단을 구성
 - 컨설팅의 내용은 사업추진의 애로, 개선방안 등을 조언
- 지역위, 행안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점검 및 컨설팅 결과를 작성하고 개선의견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
 - 성과창출을 위한 정책의 개선방안은 권고안의 형식으로 작성, 제공

☐ 제도이해를 위한 연계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제공

- 권역별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별 담당 공무원의 교체 등으로 연계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제공 수요가 있음
 - 주민 뿐 아니라 의회의원 등도 제도 이해에 대한 교육의 제공을 희망하고 있음
- 지역위, 행안부 등을 중심으로 교육 전문가를 선임하여 교육을 제공
 - 교육요원은 지역발전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위 및 행안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국책 연구원, 시도 연구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 교육의 내용은 지역발전정책 전반 뿐 아니라 지역발전정책에서 연계협력의 중요성, 연계협력의 추진방식,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 등을 중심으로 편성
 - 교육의 제공방식은 권역이나 지역별 순회방식을 채택하여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 뿐 아니라 처방을 공유하는 형태로 추진

지침을 개정

18) 이 파트는 한국재정학회(2011)의 '시군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정인센티브 방안'을 원용, 정리하였음을 밝혀둠

5. 시·도의 촉진자 및 조정자 역할 수행

- 협력사업은 거시적인 정책결정에서 시작하여 사업발굴 및 계획, 입지나 설계의 결정으로 종결되는 길고도 복잡한 과정이며 이 기간 동안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
 - 조정자는 협상절차, 협상의제 선정, 협상규칙 제정, 이해관계의 절충, 대안 선택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3자의 입장에서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지원
- 시도가 해당 시도내 및 시도간 지역의 연계협력을 위한 촉매, 조정, 중재 등을 수행
 - 해당 지자체의 연계협력 의사의 파악 및 전달, 중재 뿐 아니라 시군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시도간 연계협력에 대해 초기의 협력을 지원

6. 지역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환경 조성

- 지리산권의 장수벨트화사업, 이천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처럼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장 협의회 등 지자체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가 초기단계의 협력환경을 조성하는데 유리하게 작용
 - 기존의 지방자치법상 광역협력제도, 특히 협의회를 통해 평소에 지역간 문제에 대한 상호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큰 도움
- 뿐만 아니라 지리산권의 장수벨트화사업과 대구·경북의 한방산업 육성사업 등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지자체, 지방의회, 대학, 상공인 등 지역간·주체간 폭넓은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이 지역협력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지자체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다양한 지역내 이해관계자들을 추진과정에 함께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구축이 보다 많은 협력의 추진력 확보 가능

7.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참여 확대

- 입지선정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혐오시설의 입지에서는 협력을 이끌어 내는 관건임
 - 혐오시설의 입지를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된 요인은 타당성 검토단계부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 계획과 하향적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주민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 지금까지 혐오시설 입지선정 등 연계협력에서 상당수 명목상 참여에 불과했던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

- 협력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때부터 주민들이 참여하여 관련 정보를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평가하고, 협상에 의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며, 시설의 완공 후 운영과정에도 주민참여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모니터링으로써 협력 활성화
- 주민의 조기참여가 계획초기단계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협력사업의 성공을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

8. 지역협력발전촉진법 제정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걸친 사업의 시행이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협력하여 공동으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규모의 경제 확보, 중복투자의 방지를 제도적으로 지원
- 법률의 목적, 협력사업의 유형, 지원대상분야, 협력계획의 수립, 재원지원, 추진체계, 지역간 협약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기반 구축

참 고 문 헌

- 강인성(2007), 「협력적 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역협력체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차미숙 외(2008),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국토연구원
- 김선기 외(2009), 「지역협력촉진특별법 연구 및 시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선기·한표환(2003), 자치단체간 협력관계의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2)
- 김현호(2012), “지역간 연계협력의 활성화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가천대학교 공동세미나 자료, 5월 16일
- 김현호 외(2011),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현호 외(2011),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현호·오은주(2008), 「지역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소영 외(2011), 「지역발전정책 활성화 관련 교육교재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원섭(2011), “유럽연합의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 「지역과 발전」, 가을호
- 지역발전위원회(2011), 「지역과 발전」, 가을호
- 지역발전위원회(2009),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 매뉴얼」
- 지역발전위원회(2009), 「지역발전과 광역경제권 전략」
- 환경분쟁연구소(2008), 「지역협력사업의 유형화 및 갈등해소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 Leach, W.D.& N.W. Pelkey(2001), "Making Watershed Partnerships Work: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Management*, Vol. 127, No. 6, pp. 378-385.

MEMO

MEMO

대충청권 연계협력토론회

대충청 녹색생태관광사업 추진현황

김용동 대전발전연구원 녹색생태관광사업단장

『충청권 연계협력토론회』 대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 추진 현황

2012. 6. 19



목 차

- I 사업개요
- II 대청호 오백리길 코스 조성 현황
- III 2차년도 사업추진 결과
- IV 사업 성과목표
- V 3차년도 사업계획
- VI 사업추진상 애로 사항



1. 사업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 배경

- 대청호 유역은 대부분 상수도보호구역 및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생활환경개선 요구
- 최소한의 환경훼손을 줄이면서 청정자연자원과 녹색산업기술의 신성장 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성장 관광프로젝트 추진 필요
- 대청청 광역 녹색생태관광사업을 통해 대청호 주변의 다양한 자원 활용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 세종시 건설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대전·충청권 지역의 인구와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른 주변 여가시설 필요

사업 목적

- 녹색 IT기술 접목에 따른 콘텐츠 지역정보 및 안내 서비스 제공
-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을 테마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개발사업
- 해당 권역의 연계협력 선도사업 추진체계 구축



3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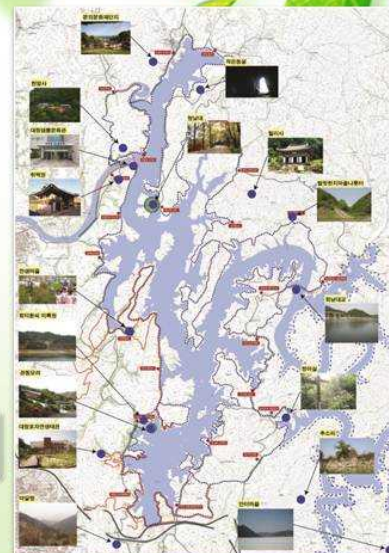
2.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 계획년도 : 2010. 7 ~ 2013. 4, 1·2·3차년도(34개월)
 - 1차년도 2010. 7 ~ 2011. 4(10개월)
 - 2차년도 2011. 5 ~ 2012. 4(12개월)
 - 3차년도 2012. 5 ~ 2013. 4(12개월)

공간적 범위

위치 : 대전(동구, 대덕), 충북(청원, 보은, 옥천), 충남(공주)



공간적 범위

공간	행정구역	주요사업	거점지구
대전	동구, 대덕구	광역생태체험로 일체화 정비사업	대청댐 공원 대청호생태전시관
충북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청남대 산림욕장 정비사업 수변산책로, 약초마을길 조성	문의마을, 청남대, 별랏마을 안터마을, 정지용생가, 청마 아자학교
충남	공주시	자전거 대여시스템 구축	고마나루, 공산성

4

1. 사업개요

대청호오백리길

3. 사업추진 내용

사람,산,물이 만나는 대한민국 대표 녹색생태공간 조성

녹색관광 활성화			지역사회 발 전			자연생태 보 존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기본시설 정 비	- 광역생태체험로 일체화 정비사업 - 대청호반 조망대 조성사업 - 대청호반길 경관조성사업 - 청남대 산림욕장 정비사업		- 광역생태체험로 일체화 정비사업 - 대청호 오백리길 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 회남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 옥천 약초마을길 조성사업		- 대청호오백리길 경관단지 조성 - 광역생태체험로 일체화 정비사업 - 대청호오백리길 명품길 조성사업 - 대청호오백리길 홍보관 구축사업		기본시설 정 비	
	- 오백리길 신규코스 개발 - 사업단 팸투어 사업 - 대청호 체험프로그램 아이디어공모전		- 관광상품 및 특산물 개발 사업 - 후레이크리 콘텐츠 개발 및 개선		- 대청호오백리길 국제유스텔리 개최 - 스토리텔링 개발			

1. 사업개요

대청호오백리길

4. 사업추진 경과

- '11. 5. 광역 생태체험로 일체화 정비사업 및 청남대 산림욕장 정비사업 실시계획 완료
- '11. 5. 제2회 대청청 녹색생태관광사업 운영위원회 개최
- '11. 6. 향토음식점 인증 및 지원사업 완료 및 시상식 개최
- '11. 7 ~ 8. 대청호오백리길 청소년탐사단 출범 및 활동
- '11. 9. 대청호오백리길 홍보대사(박세리) 위촉식
- '11. 9. KBS 테마여행 길을 걷다 - 대청호오백리길 방영
- '11. 10. 2차년도 광역연계협력사업 협약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전시, 충청북도, 대전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 '11. 10. 행자부 지자체간 연계협력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 대청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
- '11. 11. 대청호오백리길 활성화 협력사업 10개 기업 MOU 체결식
- '12. 2. 대청호오백리길 청소년 탐사활동 수기공모 시상식
- '12. 2. 제3회 대청청 녹색생태관광사업 운영위원회 개최
- '12. 4. 제2회 대청호오백리길 라디오티어링 걷기대회 개최



III. 대청호 오백리길 코스 조성 현황



1. 대청호오백리길은?

- 대청호 오백리 길은 대전, 충청권 지역의 대청호 주변 자연부락과 소하천 포함 약 200km의 도보길(주변 등산로, 산성길, 임도, 옛길 등)
- 5개 지자체의 도보길(대전 대청호반길, 옥천 향수길, 청남대 사색길 등)을 포함
- 대청호 전체의 상징성과 대전·충북에 걸쳐있는 대청호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현재 대청호 오백리길 코스 개발은 탐사단 구성 후 기존코스 포함 총 21개 코스(220km)를 개발중임
- 지역의 문화·역사 자원 포함, 지역주민 참여 유도, 대청호의 수려한 경관을 보고·느끼고·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

500

지·식·경·목·부
한국관광공사

대청호 오백리길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



7

III. 2차년도 사업추진 결과



○ 인프라 사업

○ 대청호오백리길 홍보관 구축사업

○ 회남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 수변활용 산책로 설치(데크)

○ 광역생태체험로 일체화정비사업

- 위험지구 안전데크 설치, 조경수 식재
- 침수 및 수해 피해시설 복구

○ 청남대 산림욕장 정비사업(이월)

○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설치사업(이월)

○ 환산 약초마을길 조성사업

- 가로수(과실수), 안전시설 설치

○ 대청호오백리길 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 21개 코스 전역 방향안내판 설치
- 파고라 설치 예정

○ 소프트웨어 사업

○ 대청호오백리길 해설사 양성프로그램 운영

○ 대청호오백리길 스토리텔링 2단계 사업

○ 향토음식점 컨설팅 지원사업

○ 관광특산물 개발 컨설팅 사업

○ 대청호오백리길 팸투어 개최

○ 대청호오백리길 코스 안내책자 발간

○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및 개선 확충

○ 전국도보길 답사를 통한 대청호오백리길 컨설팅 보고서

Ⅲ. 2차년도 사업추진 결과



1. 이월사업

광역생태 탐방로 일체화 정비사업

● 사업내용

- 대전 대덕구, 동구 오백리길 탐방로 정비 및 위험지구 안전시설물 조성
- 경관테크 및 보도정비, 잔디포 조성

청남대 산림욕장 정비 및 확충 사업

● 사업내용

- 주차장 내 잔디블록 설치
- 테마형 데크로드를 통한 보행로 조성

자전거 대여시스템 정비 및 확충사업

● 사업내용

-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8개 지정장소, 기존 3개)
- 시설규모 : 자전거 110대, 전용 보관대 11대 등

대청호오백리길 홍보관 구축사업

● 사업내용

- 디스플레이 영상 구현
- 멀티터치테이블 및 공간 및 시설 구성



9

Ⅲ. 2차년도 사업추진 결과



2. 기반시설정비

대청호오백리길 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 사업내용

- 안내표지판 및 방향표지판 설치
- 편의시설설치(파고라 등)

회남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 사업내용

- 보행데크 : 649m
- 안전난간 설치

환산 약초길 조성사업

● 사업내용

- 교목 및 관목 식재(6개마을)
- 초화류 식재



10

III. 2차년도 사업추진 결과



3. 통합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대청호오백리길 청소년탐사단 운영

- 사업내용 :
 - 대청호오백리길 청소년 탐사단 발대식 및 여름캠프
 - 대청호 생태체험 교육

대청호오백리길 제2회 라디오편타링 대회

- 사업내용
 - 대청호 오백리길 주변 코스를 걸으며 라디오 미션에 따라 체험프로그램 진행
 - 코스별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마련

대청호오백리길 코스 안내책자 발간

- 사업내용
 - 대청호오백리길 탐방로 코스 안내 책자 발간
 - 거점, 구간거리 및 명칭 등 관련된 다양한 정보 삽입

대청호오백리길 해설사 양성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대청호 지킴이단 운영(물사랑 체험단)
 - 해설사 양성 교육 기초 및 심화 과정



11

III. 2차년도 사업추진 결과



3. 통합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대청호오백리길 홈페이지 개선 및 확대사업

- 사업내용
 - 대청호 오백리길 안내 유선,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 대청호 주변 통합 관광안내체계를 위한 IT 기반 구축

대청호오백리길 모바일 및 TV매체 홍보 사업

- 사업내용
 - 대청호오백리길 6개 코스 홍보 동영상 제작
 - 총 3회 방송 추진

대청호오백리길 사계 및 보도 사진집 발간

- 사업내용 :
 - 대청호오백리길 행사 관련 보도사진집 발간(향후 백서 활용)

대청호오백리길 환경영화제

- 사업내용
 - 대청호오백리길의 청정자연환경을 소재로 하는 영화를 공모
 - 대전 아트시네마 극장 영화상영 및 시상식 지원



12

III. 2차년도 사업추진 결과



3. 통합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대청호 녹색생태관광사업단 팸투어 사업

사업내용

- 1차 대전 및 충북 블로그 기자단(40명), 2차 전국단위 파워블로그(40명)
- 3차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충청권 6개 선정 기관 책임자(20명)
- 4차 대전지역 도시개발 및 환경개발 연구 단체(100명)

대청호오백리길 관광특산물 컨설팅 사업

사업내용

- 지자체 및 전문가 등의 기초 선별작업을 통하여 선별된 특산물들을 토대로 대청호오백리길만의 브랜드, 특산물 개발

대청호 주변 스토리텔링 2단계 사업

사업내용

- 온라인 스탬프앨리 프로그램 개발
-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영상물 제작

향토음식점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내용

- 주방 및 음식점의 시설 및 장비관리 교육
- 주방생산 및 재무, 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지원 검토



13

IV. 사업 성과목표 달성도



1. 성과목표 달성도

구 분		사업수행기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매출(백만원)	목표	4,000	7,500	11,100	22,600
	실적	2,943	5,800	-	-
고용(명)	목표	114	217	426	414
	실적	71	98	-	-
관광객수(천명)	목표	50	100	150	300
	실적	585	1,650	-	-

※ 고용 인력은 사업수행시 참여하는 직간접 인력을 합하여 산정하였음
 관광객수는 대청호 오백리길 코스의 주요 거점 관광지 4곳
 (문의마을, 청남대, 벌맞마을, 찬샘마을)의 관광객수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음

- 1차년도 21개 코스 완성 및 2차년도 추가 간선 코스 개발로 성과발생!
 (지자체 조성 코스와 연결)



14

IV. 사업 성과목표 달성도



2. 기타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산출근거	
직접매출(백만원)		계획	400	800	1,200	22,500	유료관광지 및 체험마을 체험비
		실적	700	100	-	-	
간접매출 (백만원)	코스주변관광객 소비액	계획	3,000	6,000	9,000	-	코스 주변 관광객 평균소비액 × 관광객수
		실적	4,500	5,500	-	3,000	
	기념품 수입 및 숙박매출	계획	500	700	900	-	파생 기념품수입 + 코스개발로 인한 숙박관광비
		실적	800	200	-	-	
합 계		계획	3,900	7,500	11,100	22,500	-
		실적	5,966	5,800	-	-	

※ 직접매출은 코스에 해당하는 유료관광지 및 체험마을의 체험비를 합하여 산정하였음
간접매출은 도보관광 당일 평균 소비액 약 3,330원(교통비 제외)과 방문 관광객수
약 1,650,000명을 곱하여 산정하였음



15

V. 3차년도 사업계획



1. 기본사업개요

비전

대충청권 녹색산업 동반성장 원동력 확보

전략

- IT 기술을 접목한 코스 안내 및 관광상품 개발
 - 스토리텔링(스토프텔리) 인증 및 실용화 사업 등
- 녹색환경 보존을 위한 대청호 오백리길 정비 추진
 - 대청호오백리길 경관단지 조성사업, 대청호오백리길 명품길 조성사업 등
- 안전하고 편리한 산책로 제공을 위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
 - 회남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환산 약초마을길 조성사업 등
- 대충청권 녹색 문화산업 육성 추진
 - 대청호오백리길 수익사업 개발, 자전거코스 발굴사업 등

사업
개요

- 2차년도 총 3개 분류 15개 사업 추진
- 예산 : 총 27억(국비 12억, 지방비 15억)

16

V. 3차년도 사업계획



2. 사업 총괄표

추진목표	주요 사업 내용
광역관광 자원개발	대청호오백리길 경관단지 조성사업 (대전)
	대청호오백리길 명품길 조성사업 (대전)
	회남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충북)
	환산악초길 조성사업 (충북)
	대청호오백리길 홍보관 조성사업(충북)
녹색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대청호오백리길 청소년 탐사단 운영사업 (대전)
	대청호오백리길 국제유스렐리 개최사업 (대전)
	대청호오백리길 램투어 개최사업 (대전)
	대청호오백리길 활성화 협력기업 지원사업 (대전)
	대청호오백리길 라디엔터어링 걷기대회 개최 (충북)
	대청호오백리길 거점마을 지원사업 (충북)
	스토리텔링(스텝프렐리) 인증 및 실용화 사업 (충북)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청호오백리길 자전거코스 발굴사업 (충북)
	대청호오백리길 수익사업 개발방안 (충북)
	녹색생태관광사업단 운영

17

V. 2차년도 사업계획



3. 사업기대효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녹색관광자원 개발

- 지역축제개발 및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체험 등 관광자원 공유
- IT기반 녹색기술을 통한 친환경 사업 추진
- 지역민들의 특산물 유통 채널 제공 및 자발적 주민참여 유도

세종시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 거점지역 주변의 친환경 여가휴식 공간 제공
- 도시 정주민구의 근거리 향토음식 및 농촌체험공간 제공

스마트 기반의 지역정보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증진

- U-Tourism · U-Health Care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정보 및 관광서비스 제공
- 대청호 오백리길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서비스 인력 양성

18



IV. 사업추진시 애로 사항

IV. 사업추진상 애로 사항

1. 사업준비시

기획단계시 광역자치단체 간 참여

- 광역자치단체 참여를 위해 '대청호오백리길' 마스터 플랜 내 사업 외 광역별 숙원사업 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 및 현장답사, 사업계획을 통하여 포함

사업발굴시 사업단-자치단체 간 연계

- 신규 도보코스 시설물 설치의 점용허가 혹은 설계 감독이 필요하므로 사업단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어 해당 자치단체의 감독자 선임 및 협의를 통해 해결

2. 사업시작시

사업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 사업 추진시 사업비 지급은 필수적이나 지식경제부의 국비 지급이 늦어지고, 지방비 매칭 역시도 늦어질 수 밖에 없어 단기간 내 사업추진의 어려움

IV. 사업추진상 애로 사항



3. 사업추진시

사업 추진시 사업단과 지자체의 방향 차이

- 대청호오백리길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효율성 극대화 필요
- 사업에 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필요사업과 사업단의 사업추진 방향이 일부 달라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하되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거쳐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였음

4. 사업성과 제출시

사업성과에 대한 광역별 평가 및 기대치의 상이함에 따른 어려움

- 사업비의 출원이 정부, 광역, 지자체로 나누어 졌을때 각 광역지자체는 성과부분이 출연금에 준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광역 관광자원의 개발은 정확히 성과가 나누어 지기 어려움이 있음
- 소프트웨어 사업과 같은 무형의 사업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지만 즉각적인 결과를 나타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21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오백리길'

여러분의 곁에 대전발전연구원 녹색생태관광사업단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EMO

대충청권 연계협력토론회

대충청 녹색생태관광사업 소개

■ 사업 소개

대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단은 대청호의 청정자연자원과 녹색성장의 접목을 통하여 대충청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대전과 충북, 충남에 이르는 대청호 반길 조성을 위해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공모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 8월 국비와 지방비가 확정됨에 따라 2010년 9월 정식 출범되었다. 운영인력으로는 주관기관이 대전발전연구원 녹색생태관광사업단으로 단장과 연구원 4명, 사무원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기관인 충북발전연구원 녹색생태관광사업단이 부단장, 연구원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생태관광사업단은 녹색생태관광사업이 지역녹색성장에 대한 대표사례가 되기 위하여 “사람과 산과 물이 만나는 대한민국 대표 녹색생태관광지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핵심테마로써 대충청민들의 지역향토문화를 알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되며, 인근 도시민들의 심신안정 및 친환경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청정한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녹색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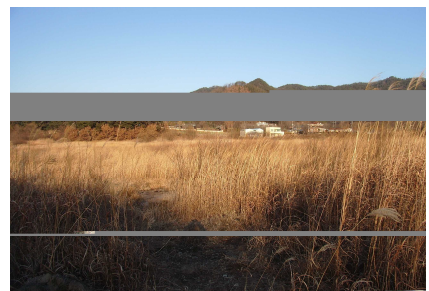
현재 대청호오백리길 코스개발은 대전시에서 기조성된 대덕구와 동구에 이르는 대청호반길 11개 코스 59km에 이르는 도보길을 연결하고 충북지역에 신규 조성되는 도보코스와의 연결을 통해 약 220km, 21개 코스에 이르는 대충청권역의 명품도보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21코스 로하스해피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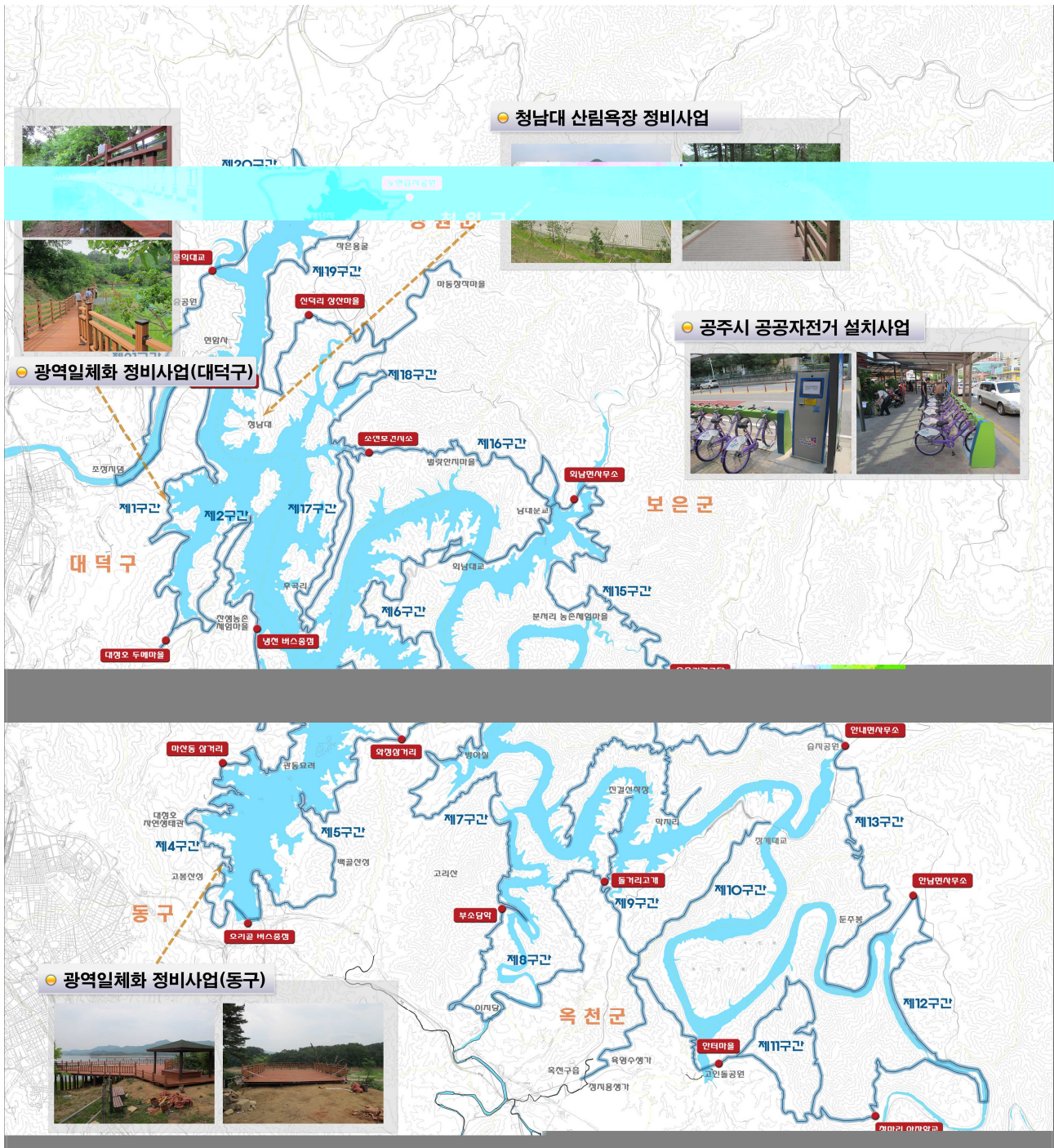


3코스 직동 찬샘마을



5코스 흥진마을 갈대밭

■ 주요 인프라사업 위치



MEMO

MEMO

MEMO

MEMO

지자체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중청권 연계협력토론회

- 주 최 : 대통령직속 지역개발위원회
 - 주 관 : 대전발전연구원
 - 후 원 :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 한국생산성본부
 - 행사일 : 2012. 6. 19 (화) / 대전발전연구원 3층 대회의실
 - 인 쇄 : 충남기획 (042-822-2204)
-

<비매품>